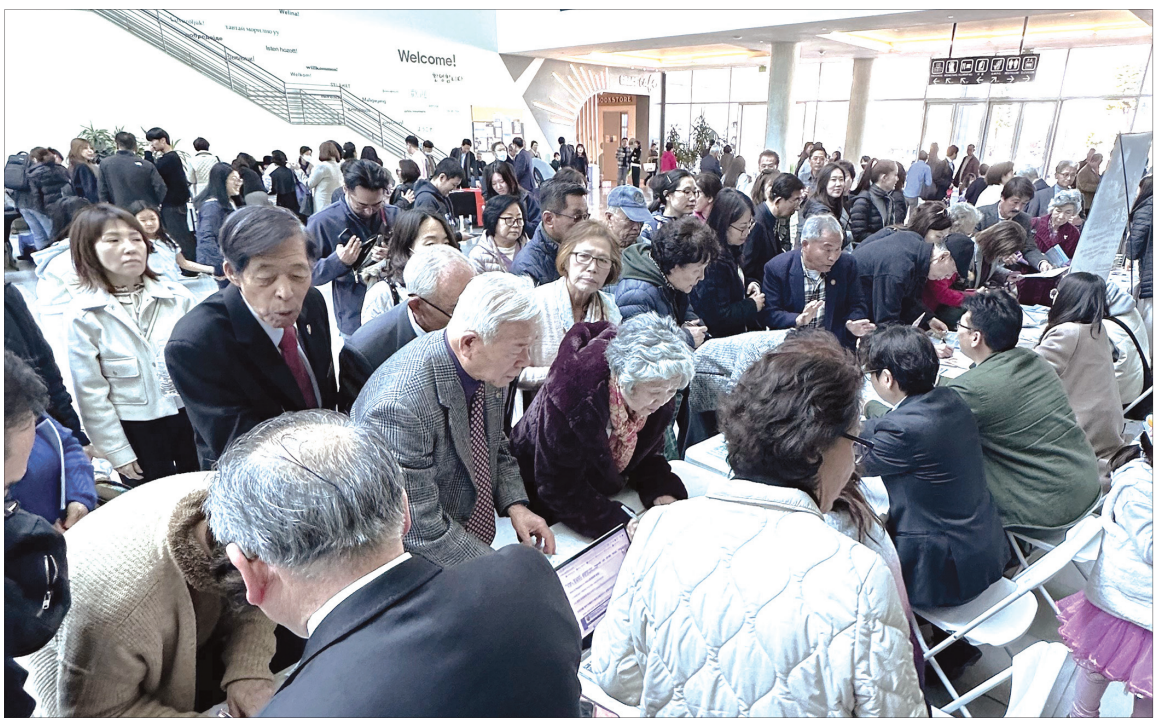
No.1 시니어 HMO 네트워크
내일의 나를 위한 선한 선택
센터메디컬그룹

#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February 16 2024 Vol. 903

# 청원서 서명 운동 악법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최근 한인 교계는 "아이들 보호법 주민 발의안 청원서 서명운동 본부"를 발족해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1일 은혜한인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서명 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예배 이후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아동보호법 주민발의안 청원서 서명운동(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청원서)이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땅의 아이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성전환 수술을 주정부 돈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을 부모라 해도 반대하면 처벌하는 법이 주지사에 의해 통과되었다.

가주의 악법들을 무효화하기 위한 `아이들 보호법 주민 발의안 청원서`(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서명 운동 전략 모임이 지난 2월 10일 토요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진행되었다. 다음 날인 11일 은혜한인교회는 주일 1, 2, 3부 예배 때 이 서명 운동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간증 영상을 상영하며 예배 이후 서명을 권면했다.

그 결과 당일에 본당 로비에서 10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고 3월 말까지 계속해서 주중에는 교회 안내 데스크에서 그리고 매주 일에는 본당 로비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7일에는 '남가주연합기도대회'가 열린 주님의영광교회에서는 기도대회 후 주민발의 서명운동 설명회 시간이 진행된 바 있다.

➔ 2면에서 계속

# "생존문제에 직면한 교회들... 섬김에서 길 찾고자"

미주 기독일보가 20주년을 맞아 미주의 주요 목회자들을 만나 현재의 이민교회의 목회 과제와 미래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다. 첫번째 순서로 LA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목사를 만났다. 나성영락교회는 지난해 50주년 희년을 맞은 바 있다. 박은성 목사는 지난 2017년 나성영락교회에 부임한 이후 교회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다음 세대 육성을 위해서도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LA에서 대표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는 교회로서 모범적인 목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나성영락교회가 한인이민교회에서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성도들이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는 것이다. 나성영락교회의 오랜 전통이 그대로 성도들의 마음 안에 녹아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성영락교회가 더욱 이민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늘 가지고 있다.

나성영락교회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신앙전통을 고이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제가 이 분들의 기도열차에 무임승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존경스러운 신앙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 이민교회 초창기 신앙이 거의 다 그랬지만 엄동설한에도 철저히 신앙의 기준을 지키고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는 대단한 분들이 많다. 1.5세나 2세, 혹은 3세들이 그런 신앙명장들의 본을 잘 이어가면 좋겠다. ➔ 4면에서 계속



# PCUSA, 46년 만에 루이빌 본부 건물 매각 검토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 위치한 PCUSA 교단 본부 건물. ©PCUSA

미국 최대 장로교단인 미국장로교(PCUSA)가 1980년대부터 점유한 켄터키주 루이빌에 위치한 본부 건물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프레스비터리언 센터로 알려진 이 건물은 PCUSA가 미국 남부에 기반을 둔 미국 남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in the U.S.)와 이 교단을 창설한 북부 기반인 미국연합장로교회(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가 1983년 합병된 후 1988년 8월에 이 건물로 이전했다.

PCUSA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인 릭 존스는 CP에 "법인 이사회가 프레스비터리언 센터의 장기적인 미래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며 "지난주 이사회 회의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센터의 미래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존스는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업무 방식이 다양화되어 교회 지도자들은 센터의 최선의 활용법과 현재 및 미래 사역을 지원할 최상의 전략을 고려하고 되었다"고 했다.

미국의 다수 종교 단체와 마찬가지로 PCUSA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상당한 감소를 겪으면서 회원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작년 5월 PCUSA 총회 사무국이 발표한 연례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이 교단의 회원 수는 2022년에 약 114만 명이었다. 이는 2000년 250만 명의 회원 수에 비해 급격한 감소이며, 2011년에는 20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 2 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초긴급!!!

##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 청원서 서명운동

11월 선거에 주민투표 발의안 상정을 위한
공식 법적 청원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California의 악법들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부모의 권리를 되찾기

## 주민 발의안이 통과 되면?

1. **안전:** 공립/사립학교와 대학에서 화장실/샤워실/라커룸을 **출생성별**로 사용하게 함
2. **공평:** 7학년부터 여학생 스포츠에 **트렌스젠더 남성 참가 불허**
3. **학부보 권리 보호:** 학교에서 학생을 트렌스젠더로 만드는 '젠더 명칭', '성별 전환' 시도 전에 반드시 **학부모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
4. **타고난 성별 보호:** 학교에서 **학부모 허락없이** 학생에게 **젠더 관련** 건강 및 정신 검진 혹은 **시술금지**
5. **납세자 세금 보호:** 18세 미만 학생들의 트렌스젠더 의료서비스에 납세자들의 세비에서 나오는 자금 사용 금지

## 몇 개의 서명이 필요할까요?

- 11월 주민발의안에 상정되기 위해 필요한 **유효 서명 숫자: 550,000개**
- 무효화 될 서명들을 고려하여, **총 700,000개의 갤리포니아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 **한인 컴뮤니티** 서명 숫자 목표: **70,000개 이상**의 싸인
- 한인 서명 마감: 2024년 4월 13일
- 서명용지 및 설명서 보급장소
  OC: 은혜한인교회, 갈보리선교교회, 사우스베이: 토렌스 조은교회
  LA: 미주성시화 운동본부, LA 동부: 선한목자교회(Chino hills)

서명방법 보기
TVNEXT.ORG

서명에 관한 안내나 서명용지를 받기 원하시면 서명운동본부( 310-995-3936, 323-578-7933)나 TVNEXT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서 서명 운동 본부

**고 문** : 송정명, 김영길, 한기형, 최학량, 최홍주, 민종기, 김인식 (이상 목사)
**대표대회장** : 한기홍
**공동대회장** : 강준민, 고승희, 고창현, 고태형, 고현종, 구봉주, 국윤권, 권혁빈, 김경진, 김기동, 김기섭, 김우준, 김종규, 김준식, 김지훈, 김태형, 김한요, 김호용, 남강식, 남성수, 노창수, 민경엽, 박규성, 박성규, 박성근, 박용덕, 박은성, 박헌성, 방상용, 백정우, 손창민, 송병주, 신동철, 신승훈, 신원규, 안 환, 오명찬, 우영화, 윤대혁, 이 서, 이영선, 이정현, 이종용, 임성진, 주혁로, 지용덕, 진유철, 최성광, 최 혁, 최형규
**각지역 대표** : 최영봉, 박재만, 이필성, 오기현, 박선호, 김우준, 전지승, 류수렬, 김형길
**지도위원** : 남가주지역 모든 담임목사
**자문위원** : 김태오, 새라 김 (TVNEXT 대표, 408-309-4084)
**실행위원장** : 강순영 (310-995-3936) , 심상은 (714-722-4805)
**사무총장** : 강태광 (323-578-7933)

## 17일(토) 오전 7:20 은혜한인교회서 기도모임
## 남가주교협 4월 6일까지 매주 월,목 가두 서명 전개

➔ 1면 기사 〈청원서 서명 운동...〉에 이어서 한편, 남가주 교협(회장 최영봉 목사)은 임원회의를 열고 2월 12일부터 4월 6일 까지 매주 2번(월,목) 오전 11시 부터 오후 4시까지 가두서명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2월 12일부터 LA산하 일부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최소 한인 1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서명은 1.온라인 2.각교회 방문 3.양로병원, 시니어 아파트 방문 4.마켓, 시장 방문 5.윌셔길, 올림픽길, 웨스턴길, 벌몬길 상가 방문 등을 통해 진행한다.

이번 주 15일(목)에는 한 팀은 김스전기 앞에 탁자를 설치하고 가두서명을 받을 것이며 또 다른 팀은 코리아타운 플라자와 갤러리아 마켓을 돌며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가두서명 운동에 필요한 홍보용 전단지, 서명용지, 볼펜,가슴띠,배너,탁자,의자 등은 샘신 목사가 제공했다.

이 운동을 주관하는 TVNEXT(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관 정립 및 보호)의 세라 김 사모에 따르면, 70만 개의 서명이 필요하며, 한인 커뮤니티의 목표는 55만명의 10%인 5만 5천~7만개이다. 작성된 청원서를 4월 13일까지 TVNEXT의 주소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한국 교계의 빠른 참여가 요청된다.

청원서 서명을 위한 파일은 TVNEXT.ORG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이 파일의 4,5,6,7 페이지를 프린트한 후 마지막 페이지(7)에 서명을 받으면 된다.

서명 운동을 펼치는 단체나 개인은 서명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서명운동 본부에 따르면, "이 서명 운동은 다음 세대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악법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신속한 서명운동을 위하여 오는 2월 17일 오전 7시 20분에 은혜교회에서 열리는 2024년 신년 조찬 기도회에 교회들과, 각 기관들, 단체들,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회를 갖는다.

**일시:2월 17일(토) 오전 7:20분**
**장소: 은혜한인교회 2층 친교실**
가주 아동보호법 주민발의 신청서 서명운동 본부 기사 제공





"2024 아동보호법 주민발의안(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서명운동 본부"가 발족되어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70만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한인 커뮤니티의 목표는 7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며 이를 위해 남가주교협은 4월 6일 까지 매주 2번(월,목) 오전 11시 부터 오후 4시까지 가두서명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남가주교협

# 기쁜우리교회 7주년 "환란 가운데 믿음이 있는 너는 부유한 자"



2월 12일 기쁜우리교회(김경진 목사)가 창립 7주년 기념주일 감사예배를 드렸다. ⓒ기독일보

### "고난과 시련이 몰아칠 때 믿음의 진정성 드러나"
###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달라"

기쁜우리교회(김경진 목사)가 창립 7주년 기념주일 감사예배를 12일 오전 9시와 오후 12시 30분에 두 번에 걸쳐 드렸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를 찬송함으로 시작된 예배에서는 설교 전 지난 7년을 돌아보는 회고 영상을 시청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요한계시록 2:8-11)란 제목으로 설교한 김경진 목사는 "고난과 시련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가를 보면 그때 진짜 믿음이 나오다.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면서 설교를 시작했다.

김 목사는 "서머나에서 가운데 '멀'자는 몰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단한 것이기 때문에 빻고 찧어야 몰약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면서 "어떤 도시보다 환란과 고통을 받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고 했다.

이어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은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통을 받았다. 유언비언과 재산을 압류당하고 직업이 제한되어서 그들은 힘든 가난에 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9절에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가난한 사람인지, 부유한 사람인지 보는 기준은 '믿음이 견고한가'이다. 하나님은 믿음의 중심을 본다"고 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모욕을 당하는 것도 다 알고 있다. 너의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선포는 너가 부유한 자라는 것이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분이고 모든 인류를 시작하시고 종지부를 찍으신 분이시다.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을 믿는 자보다 부유한 자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은 믿음으로 사는 가이다.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줄 믿는다"라면서 "은퇴했으니까 그냥 주신 은사를 묻혀 두고 나의 행복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볼 때까지 믿음의 은사대로 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할 때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2부 예배에서 은퇴식이 거행된 가운데 강성원, 서지철(이상 은퇴장로), 김연주, 송정순, 오현자, 차순희, 최경련(이상 은퇴 권사) 등이 참여했다.

기쁜우리교회는 오는 4월 말에 튀르키예 단기선교를 갈 준비하고 있으며, 10월 중순에는 몽골단기선교에 갈 예정으로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 1면 기사 〈PCUSA, 46년 만에 ...〉에 이어서

PCUSA가 본부 매각 여부를 고려하는 반면, 쇠퇴 중인 다른 개신교 교단들은 이미 본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9월, 미국연합그리스도교회(United Church of Christ, UCC)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있는 9층짜리, 12만 평방 피트 규모의 본부 건물을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UCC 총무이자 회장인 존 도하우어 목사는 이 결정에 대한 발표에서 "우리의 소중한 선교 자원을 주의 깊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도하우어는 "이번 매각으로 인해 한때 330명의 직원이 근무하던 9층 건물을 유지하는 대신, 한 층을 임대함으로써 연간 수십만 달러의 비용을 절약한다"고 했다.

작년에 북미개혁교회(CRCNA)는 교단이 60년 이상 거주했던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의 본부를 매각할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CRCNA 사역위원회는 투표를 거쳐 본부를 매각하기로 의결했다. 미국 사역 운영 이사인 단 데캄은 성명을 통해 교단이 해당 부지를 사용했던 시간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데캄은 "건물의 시설이 노후화되고,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재정적으로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는 "팬데믹으로 인해 직원들은 다양한 업무 방식이 강제되었으며, 사무실 업무의 미래가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직원들의 건강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제 새로운 형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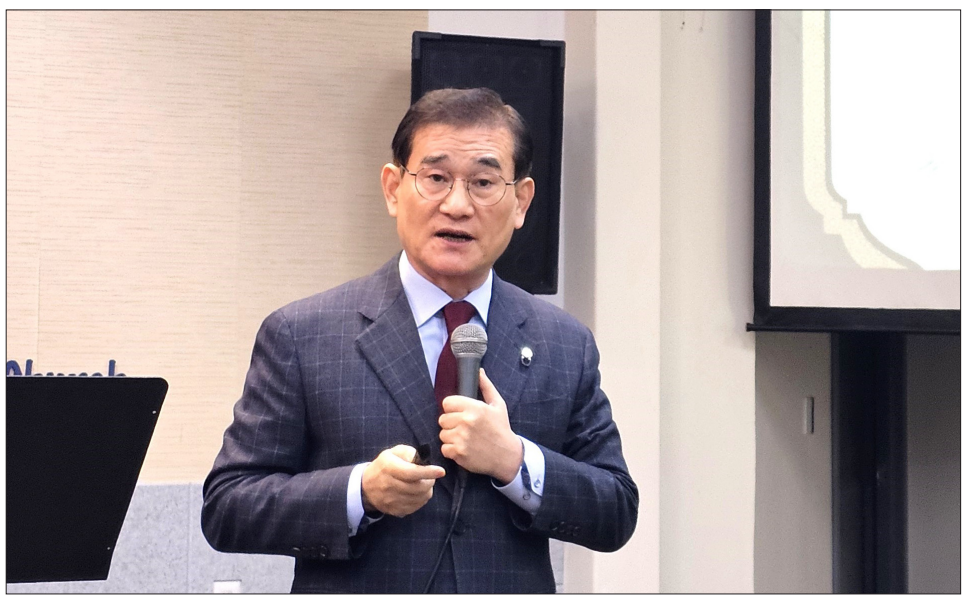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 혜 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e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 종교개혁의 배경에는 이슬람의 유럽 침공

## 유해석 교수 미주 한인교회서 강의 〈유럽 이슬람 인구성장이 교회에 주는 교훈〉, "그동안 무슨일이있었기에 유럽에 국경이 재등장했나?"



유해석 교수가 2월 7일 수요일 수요예배 시간과 2월 10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세리토스 선교교회와 한길교회에서 〈유럽 이슬람 인구성장이 교회에 주는 교훈〉에 대해 강의했다. ⓒ기독일보

"1453년 5월 29일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메흐메드 2세(Mehmet Ⅱ)에게 함락당하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했다. 이슬람 군대의 진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예언, '이슬람을 서쪽에서 찬란하게 빛날것이다'를 실현하기 위하여 메흐메드 2세는 여세를 몰아 발칸 반도 안으로 유럽의 중심부를 향해 오스만 터키 제국의 경계를 넓혀 나갔는데, 1475년에는 크림반도(the Crimea)를 탈취하였다. 나아가 1500년에는 알바니아(Albania)를, 1517년에는 몬테네그로(Montenegro)를 복속시켰다. 1517년은 바로 루터가 34살의 나이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때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오스만 터키에 의한 동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자기 반성에 바탕을 둔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

**'왜 이슬람 군대가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서로마의 기독교 국가들을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이것이 마틴 루터의 고민이었다.

그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우상숭배할 때, 바벨론, 앗수르, 팔레스타인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발견하고, '기독교의 타락이 이슬람을 불렀다'고 결론을 내린다.

루터는 이 상황을 이슬람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징계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이 징계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95개 조항을 써 붙이고, 종교개혁의 불길이 전 유럽을 강타하자 1518년 **'사면의 능력에 대한 논쟁의 해답들'** (Resolutiones Disputationum de Indulgentiarum virtute)을 작성한다. 거기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슬람 유럽 침공은 기독교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다. 따라서 무슬림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신앙고백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지난 수요일 2월 7일 세리토스 선교교회와 2월 10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한길교회에서 유해석 교수가 〈유럽 이슬람 인구성장이 교회에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유럽 이슬람 인구의 성장이 가져오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의했다.

### 쉥겐 조약을 맺고 국경을 허물었던 유럽에 재등장한 국경,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유해석 교수는 "전세계 인구 80억 중 약 20억(전체 인구의 약 25%)이 이슬람 종교를 믿는다. 탈레반이 아프기니스탄을 점령하자 약 백만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유럽으로 가기 위하여 아프가니스탄을 떠났다. 그런데 유럽연합(EU)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고 그리스는 48km국경, 터키는 87km 국경, 헝가리, 폴란드 모두 국경을 쌓았다. 유럽은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커다란 비극을 경험했다. 처칠이 2차 세계대전 직후 취리히 대학에서 '1,2차 세계대전에서 수백만명의 젊은이가 죽었다' 며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미합중국처럼 하나가 되자'고 연설했다. 그의 연설에 감동을 받은 유럽 국가들이 쉥겐 조약(Schengen Agreement)을 맺었다. 국경을 없애고 그렇게 수십년을 지내 왔는데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온다 하니 유럽이 국경을 쌓기 시작했다. 불과 2015년에 백 수십 만명의 난민을 받아 관대한 나라라고 유럽이라는 호평을 받았던 유럽이 그동안 무슨 일이 있기에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장벽을 쌓게 되었을까?"라고 물었다.

### 버나드 루이스, "21세기 말, 유럽 인구 무슬림이 다수가 될 것", 사디크 칸 당선, 영국 5개 도시 빨간 버스 640대에 "알라에게 영광을"

유 교수는 학자들과 정치가들이 내놓고 있는 유럽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인용했다.

"중동 역사학자인 버나드 루이스(Bernard Lewis)는 2004년 독일신문 벨트(Die Welt)와의 인터뷰에서 '늦어도 21세기 말에는 유럽의 인구는 무슬림이 다수가 될 것이다. 유럽은 서부 아랍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1990년 영국에 110만명이던 무슬림 인구가 지금은 약 600만명이 되었다. 영국에 무슬림 국회의원이 18명, 전 재무부장관 사지드 자비드(Sajid Javid),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수반 훔자 유사프(Humza Yousaf), 런던 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이 무슬림이다. 사디크 칸이 런던시장에 당선했을 때, 영국의 5개 대도시의 2층 빨간 버스 640대에 '알라에게 영광을(Subhan Allah)'광고판이 돌았다. 영국 시장이 무슬림이 되었으니, 알라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메시지였다.




무슬림인 사디크 칸이 런던 시장에 당선되자 영국 5개 도시의 빨간 버스 640대에 "알라에게 영광을"이라는 광고판이 설치됐다.

데이빗 콜먼(David Coleman, 옥스포드 연구소 소장, 통계학자)은 '2050년이 되면 영국의 백인은 소수민족이 된다'는 내용의 논문에서 '현재 추세의 내포된 인종적 변화는 영국 사회에서 적어도 천년 동안 전례 없었던 주요하고, 예상치 못한,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프랑스 이슬람 인구는 1952년 50만명에서 2014년 650만명(프랑스 총인구 6,600만명)으로, 프랑스 전체 인구의 10%가 무슬림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무슬림을 위한 공략을 내 놓는다. 2012년 당선되었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무슬림 불법 이민자 50만 명에게 거주 비자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프랑스 국적 없는 무슬림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때 무슬림의 97%가 프랑수아 올랑드를 선택하였다.

노르웨이의 경우 2010년에 73%가 백인이었는데 2015년에 68%로 감소했으며 오슬로 시민 7명 중에 한 명이 무슬림이며 신생아의 40%가 외국인이며, 신생아 남자의 가장 많은 이름은 무함마드 계열이다. 노르웨이 통계청은 2050년대가 되면 무슬림이 노르웨이 인구의 다수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덴마크 일간지 질란드 포스텐(Jyllands-Posten)이 무함마드의 터번 위에 시한폭탄이 그려져 있는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전 세계 무슬림이 들고 일어났다. 그 만화 때문에 덴마크 대사관 테러가 일어났고 관광객이 살해당했다. 덴마크 인구의 5%를 차지하는 무슬림 인구가 복지 지출의 40%를 차지하고 코펜하겐의 모든 범죄의 70%를 일으킨다.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 같은 만화를 실었다. 그러자 무슬림 원리주의자들이 그 주간지 사무실에 난입해 자동소총으로 12명을 살해했다. 덴마크의 국회의원 모텐 메세츠미츠(Morten Messerschmidt)는 '3~40년 안에 유럽의 대다수는 무슬림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유럽 각국의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은 다문화는 실패했다고 공언하였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2010년 10월에 '다문화 사회를 건설해 공존하자는 접근법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선언하였다.

프랑스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은 2011년 2월 10일에 '프랑스식 이슬람'이 아닌 '프랑스 안에서의 이슬람'은 반대한다고 선포하였다.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총리는 2011년 2월 5일 독일 뮌헨의 국제안보회의 연설에서 '실패한 정책(다문화주의)을 접을 시간이 됐다'고 선언하였다. 스위스 베른대의 크리스티앙 요프케(Christian Joppke) 교수는 '적어도 유럽에서는 이슬람교도들 때문에 다문화주의가 후퇴했다'고 발표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다문화 실패를 선언하자 영국의 신문 데일리 익스프레스(Daily Express)의 칼럼이스트 레오 미킨스트리(Leo McKinstry)는 유럽에서의 다문화 실패 원인을 4가지로 꼽았다. **1. 이슬람 테러리즘 2. 무슬림에 의한 성폭력, 3. 폭력적인 범죄, 4. 마약**이다. 그 외에도 **5. 출입금지 구역(No-Go- Zone)의 형성, 6 영국의 브렉시트,7. 여성 할례, 8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9 일부다처제의 실행, 10. 극우주의 부상**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1. 이슬람 테러리즘

"무슬림에 의한 테러가 1990년 343명(10건), 2010년대 8,353명(271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들의 테러는 이슬람 교리와 밀접한 관련된다. 코란에 의하면 구원받는 방법은 네가 지이다. 첫번째, 알라의 선택, 두번째, 선행, 세번째, 카바 신전 순례, 네번째는 지하드 즉 알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알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만큼 확실하게 구원을 보장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테러를 자행한다. 이를 교리화 시킨 사람은 이슬람 형제단 출신이며 지하드의 아버지로 불리는 싸이드 쿠툽(Sayyid Qutb)이다." **(다음호에서 계속)**



## 팬데믹 이후 편리함과의 싸움
## 교회의 본질을 지킬 때, 힘이 생겨
## 트랜드 따라가면 교회됨 상실
## 섬김은 교회 생존과 성장의 열쇠

➔ 1면 기사 〈생존문제에 직면...〉에 이어서

**▶나성영락교회를 향한 목회 청사진이 있다면 현재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는가?**

그동안 큰 그림을 잡아왔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구체성은 떨어질 수 있어도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꿈꾸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것을 똑같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나성영락교회에서의 목회를 뒤돌아본다면 그동안 세상의 상황과도 소통을 하면서 교인들의 신앙도 살피면서 왔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부임 이후 곧 바로 종교개혁 5백주년이라는 의미있는 해를 맞았고, 이후 숫자적인 부흥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을 다시 초청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그렇게 2020년 초반에 물적, 숫자적, 영적인 부음이 있다고 느꼈는데 코로나가 찾아 왔다. 그 뒤로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면서 성도들 돌봄에 힘썼다. 이 회복의 시간을 잘 지나고, 특히 작년에 50주년 희년을 맞아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계기가 됐다.

**▶올해 교회의 표어는 무엇인가.**

올해는 '새로운 시작, 섬김'이라는 주제다. 신년특별새벽집회, 신년 첫 설교 모두 섬김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사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전하고 싶었던 주제다. 나성영락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잘 섬겼기 때문이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섬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시작된다. 제가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다. 바로 이 예배에서 받은 은혜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매해 주제를 정하지만 꼭 그 해만의 주제로만 끝나지 않는 것 같다. 올해 주제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 제대로 섬기고자 마음을 담은 것이다. 교회적으로 보면 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제대로 섬기지 못한 부분들을 돌보고자 함이고, 또 교회 밖으로는 팬데믹 상황 때문에 제대로 섬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제는 제대로 섬겨야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민사회나 이민교회에서 나성영락교회에게 특별히 주어진 역할을 섬김이라고 보는가.**

희년은 마침이자 시작이기도 한데 올해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가 해야할 일을 하고자 한다. 교회가 섬기는 것이 옵션이 아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교회가 보이지 않으면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올 이유도 없을 것이다. 박희민 목사님이나 림형천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을 때의 나성영락교회를 생각할 때 손해보더라도 섬기는 것을 우선했다. 육체를 살리고 또 영적인 생명도 살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잘 하는 섬김이어야 한다. 이것이 진짜 섬김이고 이것을 잘 할 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뻐하는 나성영락교회 성도들. ⓒ기독일보

우리는 언제까지나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 초대교회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서로 섬기니까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칭찬했고, 그 때에 믿는 자의 수를 하나님께서 더하셨다. 교회의 모델도 섬김을 통해서 먼저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교회 안팎으로 분산됐던 힘들을 이제 온전히 사역에 집중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가 잘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잘 섬길 수 없다. 예배 때 헌신하지 않는 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새벽예배가 귀한 것은 잠을 헌신하는 사람은 뭐든지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맡겨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민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에 대해 고민하고 않을 수 없다. 나성영락교회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나성영락교회의 경우를 본다면 물론 이민사회가 고령화된 것과 같이 전체적인 나이대는 중장년층이 가장 많다. 하지만 세대별로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있고 교회의 일꾼들이 있다. 크게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를 있는데 각각 교육과 복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청사진을 그리려고 한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활용해서 꼭 모든 세대를 담아내는 교회가 되도록 할 것이다. 올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성도들이 이제 어려운 일들이 다 지났으니까 큰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기를 바란다는 격려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다.

**▶목회에 어떤 부분들을 강조해 왔나.**

교회의 기본은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라고 생각한다. 이 다섯가지를 많은 한국교회들이 기본적인 모델로 삼고 있다. 물론 모든 것의 중심은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예배에서 은혜 받아서 다른 세대 전하는 것 교육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면 봉사고, 우리끼리 나누면 친교가 된다.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여러 사역들 중 선교만 특화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을 선교화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다.

그 전에는 영락교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 큰 교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기에 뒤쳐지지 않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당회에서도 사역 중심으로 변화될 것인가. 당회 구성원도 이제 1.5세, 2세로 변화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팬데믹 때 비대면 예배 등이 등장하던 시기에 팬데믹 후 교회들이 편리함과의 싸움을 한 차례 치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한 바 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아직도 편리함과의 싸움이 남아 있다. 편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교회는 점차 어려워질 것이다. 한 가지 나성영락교회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항상 스크린을 통해서 말씀이나 찬송가 가사를 전달하는데 제가 교역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찬송가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서 예배를 인도하라는 것이다. 오히려 성경이나 찬송가를 가지고 온 분들이 꺼내지 않게 만드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본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예배에는 큰 영향을 준다. 저는 모든 신앙의 에너지는 예배에서부터 나온다고 본다. 그렇기에 작은 부분이라도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인교회가 어떻게 보면 본질을 붙잡는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다. 미국교회도 정말 진지하게 예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함부로 판단하기 보다 그 안에 귀한 것을 잘 봐야 한다.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을 때 거기서 힘이 나온다. 신앙을 문화화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추세를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너무 그것에 몰입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것은 스스로 긴장하지 않으면 쉽게 놓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트렌드에 우르르 따라 가다가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항상 염려하고 있다.

**▶나성영락교회와 같은 큰 교회들도 생존을 염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

나성영락교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전에는 큰 교회들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는 때가 있었다. 큰 교회의 특성자체가 지역에서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고 유학생들이나 사업하는 분들, 한국문화가 그리운 분들 모두 한인교회를 나와야만 일단 소통이 시작되고 직장이나 생활적인 면들도 도움을 받던 때가 있었다. 큰 교회들이 주로 그런 허브역할들을 많이 했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전도할 필요가 없었던 때이기도 하다. 건전한 신앙만 잘 유지한다면 사람들도 계속 오면서 건실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불과 10년 사이에 교회 외적으로 생활을 만족시켜주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리고 직접 교회에 나오기 보다는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해서 신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굉장히 강해졌다. 그런 면에서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됐다. 교회가 어느 때보다 생존에 대한 도전과 질문을 받는 시대가 됐고,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섬김을 계속 강조하는 것도 이 생존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섬겨야지만 생존을 넘어서 성장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또 성장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한다고 본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유지하고 살면 가라앉을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성영락교회에 계속 소망을 두신다면 생존할 것이다. 하지만 현상유지만 하려는 교회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은 생존과 성장의 문제 두가지 다 직면해 있다. 성장이 수적이 성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많은 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김대원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Proverbs318Law.com
레몬법 전문
Proverbs 31:8 Law
잠언 로펌


▸ 한인사회 한인들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립니다.
▸ 워런티(Warranty) 보증기간이 남은 새차, 리스차, 중고차
▸ 반복적인 문제로 새차교환 현금보상해 드립니다.
▸ 자동차 딜러샵 최고 1~2회 이상 수리한 사실
변호사 비용은 100% 무료!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새차 리스차 중고차
팩토리(Factory) 워런티를 갖고있는 차
브레이크,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오일 누수, 냄새, 소리, 타이어, 대시보드(Dashboard) 화면 등
1회 이상 수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David Lee 변호사
6940 Beach Blvd. Suite D-606, Buena Park, CA 90621
무료 상담
(213)210-3651
Dlee@proverbs318law.com




# 쎄시봉 콘서트

## 공연 정보

★ 2024년 3월 16일 토요일 저녁 7시
★ 야마바 극장 (777 San Manuel Blvd S, Highland, CA 92346)

## 티켓 안내

★ 무료 입장 (센터메디컬그룹 가입된 환자 only)
★ 티켓 구매 (센터메디컬그룹 미가입자분들은 야마바 극장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신청 문의

★ 714-904-1701 (평일 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하는"

# 쎄시봉

2024년 3월 16일 (토) 19시 야마바 극장

주최·주관 | 센터메디컬그룹 Center MEDICAL GROUP IPA
장소 | 야마바리조트 YAAMAVA' RESORT & CASINO AT SAN MANUEL

# 올해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 '재의 수요일'

올해 2월 14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이다. 이날부터 부활절인 오는 3월 31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기독교에서는 '사순절(Lent)'이라 부른다. 사순절(四旬節)의 명칭 자체가 '40일(라틴어로 quadragesima)'이라는 뜻이다. 음력 기준이기에, 매년 재의 수요일과 부활절은 날짜가 달라진다.

부활절 날짜를 공식 확정한 325년 니케아공의회에서는 춘분(3월 20-21일) 이후 보름달이 뜬 날의 다음 주를 부활주일로 정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 예비자들이 '회개'를 통해 세례를 준비하던 기간이 40일이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신자들도 자신들이 받은 세례를 되돌아보고 자신을 갱신하는 일에 힘썼던 기간이다. 기독교에서 '40'은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숫자다. 사순절의 40일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40일을 상징한다. 또 모세는 40일 금식으로 기도했고, 예수님도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각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맞아 '40일 새벽기도회'를 실시한다.




**◈재의 수요일**

사순절 첫날은 항상 수요일이다. 기독교는 이를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라 부른다. 이날 예배에서 재(Ash)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재의 수요일' 예배에서는 목사가 성도들의 머리 혹은 이마에 물에 적신 재를 갖고 십자 성호를 그으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는 순서를 가져왔다.

재의 수요일에는 인간의 죄와 유한성, 인생의 무상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해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것을 깨우친다. '재'는 참회와 회개, 유한성, 정화와 순수, 농경문화에서는 새로운 생명과 성장을 위한 밑거름 등을 의미한다. 특히 재의 예식에는 1년 전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가지를 태워 만드는데, 1년 전부터 이를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태우는 헌신을 통해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사순절의 시작, 주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전 하루나 이틀 금식하면서 부활주일을 준비했으나, 곧 부활절 전 한 주간을 통째로 거룩하게 지키는 '고난주간'의 관습이 생겨났다.

이후 후 한 주간이 3주간으로 길어졌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6주간 40일로 정해졌다. 특히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은 부활절 준비의 절정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서방교회에서는 이를 '성 주간(Holy Week)', 동방교회에서는 '성 대주간(Great Week)'이라 불렀다.

사순절 주제는 예수님의 고난과 이를 대하는 성도의 참회를 뚜렷하게 하는 것들로 채워진다. 전통적으로 사순절 주제는 첫째 주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유혹을 생각하고, 둘째 주는 죄를 물리치라는 명령을 생각한다. 셋째 주는 회개로의 요청을 묵상하고, 넷째 주는 치유와 회심을 생각한다. 이 넷째 주는 '장미 주일(Rose Sunday)'이라 불리기도 한다. 주일의 강조점이 죄인의 회개에서 그리스도의 치유 능력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다섯째 주일은 종려주일로 부활절을 미리 맛보는 주일이다.

몇몇 교단은 성경에 나와있는 절기가 아니고 로마가톨릭 당시 정한 절기라는 이유로,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다. 대신 부활절 직전 한 주일 '고난주간'만 기념한다.

최근 사순절에는 '미디어 금식'이나 '장기기증 캠페인', '북한 돕기 모금' 등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땅의 약자들을 돌아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 미주 다니엘기도회, 3월 3일부터 달라스 세미한교회서

한국교회 초교파 기도회인 다니엘기도회가 미국에서 미주다니엘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올해 3월 3일(주일)부터 9일(토)까지 일주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다니엘기도회는 서울 오륜교회(김은호 목사)를 중심으로 전 세계 약 16,000 교회의 동참 속에서 진행됐으며 현재까지 26년간 진행된 기도회다.

이번 미주 다니엘기도회에서는 기도회 운영위원장인 김은호 목사를 시작으로 이용훈 성악가,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 이용규 선교사, 지선 전도사,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와 오윤아 집사가 메시지를 전하며, 김명선 목사와 심형진 목사, 김윤진 간사가 찬양을 인도하게 된다.

이번 기도회는 3월 3일(주일)부터 9일(토)까지 7일간 댈러스 기준 매일 저녁 7시 30분에(뉴욕-PM.8:30, LA-PM.5:30) 진행되며, 장소는 댈러스 세미한 교회(이은상 목사)이다.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참석이 가능하다.

기도회 관계자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미주 지역의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과 영적인 회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미주 지역사회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수술과 치료 등을 도울 계획이다.

김민선 기자




## 2024 미주한인침례교 선교대회

미주 지역 850여 한인 침례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국내·외 선교 방향을 모색하는 2024 미주한인침례교 선교대회가 오는 3/1일(금)~ 3/2일(토)까지 타코마제일침례교회(송경원 목사,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에서 개최된다.

"Reaching the Nations Together"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미주한인침례교 선교대회는 IMB(International Mission Board)와 타코마제일침례교회(송경원 목사, WA)가 주최하고,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총회(총회장 조낙현 목사, 총무 강승수 목사, CKSBCA)와 서북미한인침례교회협의회가 후원한다.

선교대회 강사로는 IMB 부총재 토드 라퍼티 박사(Dr. Todd Lafferty)가 나서며, 미국 선교를 비롯해 , 〈난민 선교와 미래 선교전략〉, 〈미국 내 디아스포라 선교〉, 〈미전도종족 선교현황과 IMB의 사역〉, 〈선교를 위한 기도 동역〉, 〈아시안 차세대를 위한 선교 전략〉, , 〈선교사 과업과 동원 과업〉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또한 남침례교단 및 북미선교부의 교회 개척과 선교 비전을 공유하고, 한인침례교회의 역할을 확인하면서 침례교회 내 선교 부흥을 기도하게 된다.

한편 선교대회를 주최하는 IMB는 1845년 이래 2만 5천여 명의 남침례교 선교사를 전 세계 185개국에 파송하여 복음 전도로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해 오고 있다.

**장소 : 타코마제일침례교회**
**문의 : 253) 535-5803**




2024 미주한인침례교 선교대회에 IMB 부총재 Dr. Todd Lafferty 박사를 비롯해, Jim Graham, Gerald Lee, Hebert Hong(허보통), John Wang(왕용민), Henry Phan, Becky Graham, Ezra Bae가 강사로 선다. ⓒ미주한인침례 선교대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귀생당®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당신의 소중한 눈을 건강하게 지켜드립니다!




KISEIDO

# EYE NOON EYE

## 믿음의 이름, 귀생당에서 만든 이시대 최고의 눈 건강 영양제!

좁아진 시야, 흐려진 시야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눈 영양제!
**[귀생당 아이 눈 아이]**는 슈퍼푸드라고 불리우는 청정 열매인 **마퀴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델피니딘,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을 함께 구성하여 현대인의 눈 건강의 최적화와 눈 건강에 더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나온 눈 영양제입니다.


망막색소 재활성화


시력기능 향상


야간시력 개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예방

## 하루에 2캡슐! 아이 눈 아이로 더 밝은 세상을 만나세요!

### 아이 눈 아이의 효능 효과

- 눈 기능 활성화, 눈 건강유지 및 보호
-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 폰, TV, 등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 개선
- 백내장, 녹내장, 근시 및 AMD(황반변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 활성산소 완화
- 혈류 개선, 미세혈관 순환증가
- 심혈관, 뇌혈관 순환 도움
- 알츠하이머, 치매, 집중력, 인지능력 향상
- 장내 효소 증가
- 소화기능 개선
- 빈혈, 간 기능 개선
- 면역체계 향상

**주요성분**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델피니딘, 프로안토시아니딘, 피페린, 빌베리

• SINCE 1975 •
귀생당
KISEIDO U.S.A., Inc

**1.800.909.0001** www.kiseidousa.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evaluated by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d disease.

# “샬롬, 누군가에 행복 전하면서 함께 춤추는 것”

**지난호(902호) 기사 〈세상은 우울 · 절망만..〉에 이어서**

류 목사는 유학 시절 뉴욕 청년 목회를 시작해 지난 17년 동안 뉴프론티어교회에서 그들과 함께해 왔고, 지난 10월에는 젊은 가정 중심의 뉴저지 캠퍼스도 설립했다. 현재 미국 코스타(KOSTA) 공동대표이자 소래선교회·KPM선교회·하나로복지회 등 여러 선교회 이사로 섬기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류 목사의 계속되는 이야기.

**▶목회자 자녀이시죠.**

“아버님을 보면서 신앙적·신학적 고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가난하셨어요. 예전에는 창원이 시골 같았는데, 상가 지하 15평에서 개척하셨어요. 사택은 산에 있었고, 무허가라 번지도 없이 흙으로 지어져 밤에는 쥐가 돌아다니고 연탄을 땠어요. 그곳에서 중학생 시절 보냈고, 성도는 저 혼자였습니다.

쌀도 없이 하루살이처럼 살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일어나면 바로 가정예배를 드리셨어요. 기도하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해서요.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술과 도박에 찌들어 방황하던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자격 없는 자를 목회자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시는 걸 봤죠. 말 그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어요.

무허가 판자촌에 임했던 천국의 모습이, 제 신앙에 굉장히 크게 각인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아버님에게서 신앙의 유산을 받고 감동을 받아 목회자가 돼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목사가 되면 주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중학생 때 헌신을 다짐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아시죠? 대부분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포기하지 않았죠. 삶에 너무 함몰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크리스천의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좌우명이 ‘올 인투 지저스, 롱 런 투 헤븐(All into Jesus, Long run to Heaven)’입니다. ‘예수에게 올인하고, 천국까지 롱런한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묵상하면서, 저도 저렇게 롱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롱런하려면, 예수님께 올인해야죠.”

**▶ ‘맨해튼의 코리안 팀 켈러’ 라는 소개를 봤습니다. 팀 켈러에게 받으신 영향이 있으시겠죠.**

“신학적 컬러 때문에 선배나 동료 목사님들이 그런 닉네임을 붙이신 것 같습니다. 설교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있으신데, 저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지향하고 성경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집중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뉴욕 맨해튼에 계셨고, 도시인들에게 적합한 변증학적 설교,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답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 점을 많이 배웠고, 같은 뉴욕에서 비슷한 컬러로 사역하다 보니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드는 생각입니다. 복음은 너무 기쁜 소식이 맞지만, 복음을 살아내기는 너무 힘듭니다.**

“저도 복음적 삶을 배우고 자라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성화란 단번에 일어나지 않으니, 최소한 이를 지향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자체가 기쁘고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렇게 분투하는 삶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복음적 삶을 소망하면서,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좋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름답다는 걸 알아야 노력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아버님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소망이 생기듯 말입니다.

독자들이 책을 읽고 책장을 덮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고 나도 복음적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만 생겨도 집필 목적을 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삶의 적용도 있어야 합니다. 감히 평가할 순 없지만, 요즘 한국 강단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복음에 충실하기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현실 적용에 방점이 더 많이 찍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복음이 얼마나 압도적 영광인지는 다소 덜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합니다.”

**▶ ‘사람은 헤매는 만큼 성장한다’는 말씀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헤매 보니 알게 되는 것이죠.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육법은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양육은 일희일비하고 조급하지만, 성경 속 하나님의 양육에는 여유가 넘치십니다. 하나님은 탕자가 집을 나가서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내버려 두실 정도로 무한한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될 정도로 마음껏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믿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 신기합니다.”

**▶ ‘요나는 신학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 라는 통찰도 인상적입니다.**

“요나는 신학이 탁월했지만,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해서 니느웨를 품지 못했잖아요. 신약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는 능통했을지 몰라도,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세리나 창녀 같은 죄인들을 정죄하니 예수님께서 이를 지적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신학이나 성경공부는 많지만,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깊이 공감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부족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계속 발전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우리 마음이 계속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을까요? 저 자신에게도 항상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신학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마음도 높아지면 좋은데, ‘미스매치(mismatch)’가 일어나니까요.

신학적으로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오히려 교만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쉽게 정죄하게 되겠죠.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하는 차가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학 100점, 마음 100점’이셨어요. 신학이 가장 탁월하신데, 마음도 가장 따뜻하셨죠. 소외된 이웃들을 정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셨습니다.

저 스스로도 어설프게 알면서, 다아는 것처럼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많은 것 같아 늘 조심하려 합니다.”

**▶십자가를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 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예수님 편에선 가장 효율적인 방법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효율적·비효율적 측면보다, 이 방법밖엔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해내지 못한 유일한 방법이자 하나님의 지혜였죠. 인간 편에서 바라봤을 때는 기대했던 메시아나 구원의 방법이 아니니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옛날 다윗 왕처럼 군림하고 제패하고 패권주의적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왕이 죽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능력을 원했던 유대인들에겐 무능력한 메시아였습니다. 지혜를 원했던 헬라인들에겐 미련하고 어리석은 스캔들이었죠. 그래서 두 계층 모두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하면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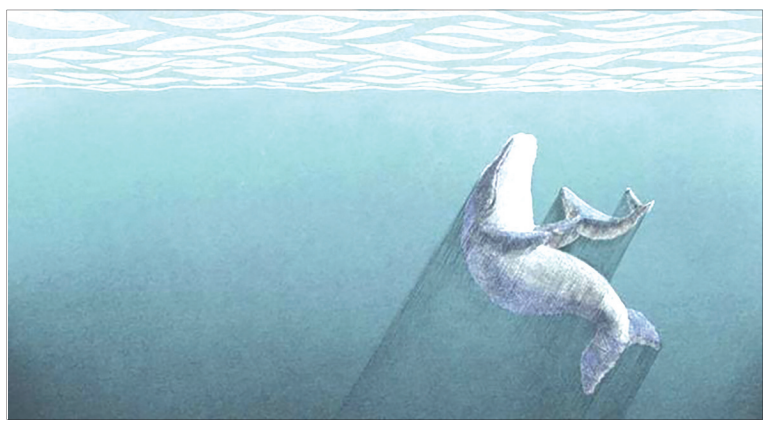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도 십자가는 받아들이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최고의 스캔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죠. ‘왜 나를 위해 죽으셨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데서 감동을 받고, 그게 믿기죠. 대신 믿기지 않는 사람들은 ‘왜 꼭 그렇게 하셨어야 했나? 신이 맞느냐?’며 복음의 문턱에 들어서지 못하죠. 그들에겐 예수 자체가 하나의 스캔들이겠죠.

하지만 교회나 크리스천을 싫어할 뿐,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잘 설명해 주는 일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고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음전도 아닐까요?”

이대웅 기자



〈춤추는 고래는 행복하다〉 저자 류인현 목사.



책 속 혹등고래 그림. ⓒ저자 제공




# ‘음주가무 클럽’ 전락한 영국 캔터배리 대성당



사일런트 디스코 현장 모습. ⓒ페이스북

**‘사일런트 디스코’ 3천 명 참석 90년대 음악 헤드폰 들으며 춤춰 주류 판매도 확인, 다른 대성당도 비신도 데려오려는 다양한 시도?**

유럽 교회가 매각돼 ‘나이트클럽’으로 변했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려오는 가운데, 영국 캔터배리 대성당에서 ‘나이트클럽’처럼 사람들이 춤추고 있는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전 세계 성공회의 본산인 영국 캔터베리 대성당(Canterbury Cathedral)에서 수백 명이 밤늦게까지 1990년대 팝송을 들으며 야광봉을 흔들면서 춤추는 ‘사일런트 디스코(silent discos)’가 진행돼 논란이 된 것. CNN과 BBC, 가디언 등 현지 언론들은 지난 8일과 9일(이하 현지 시간) 1990년대를 주제로 한 ‘사일런트 디스코’가 기독교인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4차례 파티에 참석한 총 3천여 명의 사람들은 대성당 내에서 헤드폰을 낀 채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춤을 췄다. 헤드폰으로는 스파이스걸스(Spice Girls), 에미넴(Eminem), 벵가 보이스(Vengaboys) 등 주로 1990년대 인기 가수들의 노래가 흘러 나왔지만 헤드폰 밖은 조용한 가운데 춤을 추고 있어, 헤드폰을 끼지 않으면 기괴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대성당 측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도 사람들은 화려한 조명 속에서 ‘클럽처럼’ 춤을 추고 있다. 대성당 측은 현장에서 주류도 판매했으며, SNS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였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캔터배리 대성당은 1,500여 년 전인 597년 처음 세워졌으며, 전 세계 성공회 수장인 캔터베리 대주교가 사역하는 장소다. 이번 캔터베리 행사는 영국과 유럽 전역의 대성당 및 역사적 건물들에서 열리고 있는 ‘무음 디스코’ 행사의 일환이다. 이후 길퍼드(Guildford)와 일리(Ely) 등 유명 대성당에서도 몇 달간 1980년대와 1990년대 음악을 테마로 비슷한 행사가 예정돼 있다.

‘무음 디스코’ 행사를 기획한 ‘놀라운 장소(Incredible Places)’ 측은 이미 영국 내 여러 대성당들에서 비슷한 행사를 주최했으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영국 주요 대성당들의 절반 이상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캔터베리대성당에 최고의 존경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대성당에서의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그들의 신념과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사일런트 디스코’는 사람들이 멋진 환경 속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 순수하고 기분 좋은 행사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했다. 대성당 측 대변인도 CNN에 “많은 사람들이 대성당에서 이런 행사를 열게 돼 너무 기쁘다고 말하는 등, 압도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며 “행사 티켓 3천 장은 몇 시간 만에 매진됐다”고 말했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변인은 “이번 디스코 파티는 적절하고 정중한 것이며, (회랑에서 춤추지) 회중석에서 춤추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몬테이스(David Monteith) 주임 사제도 BBC에 “대성당은 기독교인들의 예배와 선교의 중심지로서의 주요 기능보다 훨씬 더 넓은 방식으로 공동체의 일부가 돼 왔다”고 항변했다.

실제로 해당 파티에 반대하는 성도들은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대성당 밖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고, 반대 청원에도 11일 현재(한국시간) 1,8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영국성공회는 비신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이러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로체스터 대성당(Rochester Cathedral)은 본당 내 성도석(nave)을 골프 코스로 개조해 방문자가 100% 늘어났고, 그해 노리치 대성당(Norwich Cathedral)에는 놀이동산 크기의 대형 나선형 미끄럼틀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대웅 기자

# 유럽의회 “나이지리아 성탄절 기독교인 학살 규탄”

유럽 의회는 최소 195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한 나이지리아 기독교인에 대한 성탄절 공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사망자 외에도 수천 명이 주택과 교회를 파괴한 폭력사태로 인해 난민이 되었다. 결의안은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살인적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이지리아 국민과의 연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나이지리아에 “부족한 자원 경쟁, 환경 파괴, 효과적인 중재 계획의 소멸 등 플라토 주 폭력의 모든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가해자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기독교 단체들은 이번 공격이 과격화된 풀라니 목자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럽의회는 “갈등이 종교적 용어로 점점 더 많이 설명되고 있는 반면 급격한 기후로 인한 토지 경쟁 등 여러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공격을 기후 변화와 환경적 요인 때문이라고 언급해 비난을 받고 있다.

국제자유수호연맹(ADF) 법무관인 조지아 두 플레시스(Georgia Du Plessis) 박사는 폭력 사태에 대한 유럽 의회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크리스마스 학살에 대한 유럽 의회의 인식에 박수를 보내지만, 결의안이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를 강조하면서 폭력의 종교적 원인을 경시하고 있다는 점에 실망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기독교 마을 전체를 학살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베르트 얀 루이센 유럽의회 의원은 “단순히 농부와 목동 사이의 갈등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원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은 죽음과 파괴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했다. 또 다른 의원 죄르지 횔베니(György Hölvényi)는 “이데올로기에 눈이 먼 일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겪는 인간의 고통에 전혀 무감각하다”라며 “공격, 잔인한 살해, 교회 파괴의 시기는 오해될 수 없으며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로만 이해될 수 있으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주일 2부 찬양예배 오전 9:0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토요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4부 오후 1:00 영,유아부,유치부, 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비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오전 10:55
수요예배 오후 7:30 (온라인)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김 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3412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4952 / www.joohyang.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3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장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 풀러신학교, 성경적 결혼관 거부한 고위 임원 해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 위치한 풀러신학교. ⓒ풀러신학교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가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거부한 고위 이사 중 한 명을 해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릴리전뉴스서비스(RNS)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풀러신학교의 직원으로 일하던 루스 슈미트(Ruth Schmidt)는 풀러의 신앙 성명서에 서명을 거부한 후 지난달 해고되었다. 슈미트는 당시 성명서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결혼 전까지 금욕을 유지해야 하며,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한 성 윤리에 대한 입장을 문제 삼았다.

그는 풀러신학교가 성 윤리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를 환영할 것으로 여겼지만, 2022년에는 재정적인 필요 때문에 성명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미트는 RNS에 "많은 기도 끝에 하나님은 그 순간 내가 서명해도 괜찮으며, 살 곳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평안을 주셨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이 계약에 다시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며 "비록 이 공간을 다룰 수 있지만, 내가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무언가 옆에 서명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CP는 풀러신학교에 취재를 요청했고 대변인은 "개별 고용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며 "그러나 공동체 표준을 준수하는 것은 학생, 교수 및 교직원을 포함한 풀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언약 관계 안에 살고 있다. 따라서 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 표준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풀러의 공식 공동체 표준에 따르면, 대학은 "결혼 전, 결혼 외, 그리고 동성애적인 노골적인 성행위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믿고 있다"고 명시한다. 대학은 또 "결과적으로 신학교는 학생, 교직원, 행정 및 관리자, 직원 및 이사 등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비성경적인 성행위를 삼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한다.

신학교 대변인은 CP에 데이비드 에마누엘 고틀리(David Emmanuel Goatley) 풀러신학교 총장의 말을 공유했다. 고틀리 총장은 기독교 학교가 "인간의 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찰과 분별력을 가져야 할 시기에 있다"고 말했다.

풀러 총장은 "인간의 성에 관련된 문제는 개인적, 가족적, 공동체적, 교회적, 그리고 제도적 결과를 낳는다"며 "미국과 전 세계의 교수진, 학생, 교직원, 졸업생 및 파트너들과 함께 우리는 지역, 국가 및 세계적 영향력과 이에 대한 특권과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도, 공손함과 환대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격려할 수 있다"며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의 인간성을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 될 수 있는 기독교적 성숙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0년 10월, 미국 지방법원 판사 콘수엘로 마샬(Consuelo Marshall)은 풀러가 혼외 상태에 있거나, 동성 결혼을 한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려도 여전히 연방 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의 판사 3인은 2021년 12월에도 이 판결을 만장일치로 확정했으며, 풀러가 연방 교육법 9조(Title IX)에 포함된 종교 학교 면제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김유진 기자

# 美 오랄로버츠대, 등록률 기록적 상승 15년 연속 상승세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에 위치한 오랄로버츠대학교(Oral Roberts University, ORU)의 봄학기 등록률이 기록적으로 상승해 15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ORU 총장 윌리엄 M. 윌슨(William M. Wilson) 박사는 성명을 통해 "봄학기에 학생 총 5,147명이 등록해, 처음으로 5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윌슨 박사는 성명을 통해 "ORU는 놀라운 시즌을 보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감사하다"며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의 우수성과 교직원이 제공하는 부지런한 서비스는 계속해서 학부모와 학생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했다. 그는 "ORU의 고유한 가치 중심 문화는 학생들에게 세계 어디에서나 선두를 달리도록 준비하는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ORU의 전례 없는 등록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학업 여정과 취업 준비에 있어 ORU를 계속 신뢰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가족들은 가치를 우선시하는 대학을 원하며, ORU 특유의 매력이 있다"며 "ORU는 우리의 대담한 비전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 세대는 학위 이상의 것을 원하며 세상을 바꾸고 싶어한다"고 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오순절 신학교 중 하나로 알려진 ORU는 은사주의 TV 전도사 오럴 로버츠(Oral Roberts) 목사가 1963년 설립했다. ORU는 학문적 우수성과 성령에 힘입은 교육 접근 방식에 대한 명성을 이정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CP에 공유한 성명에 따르면, ORU의 등록률은 2023년 봄에 비해 10.5% 증가했다. 유지율은 93%, 대학원 프로그램 등록은 10.6% 증가했으며 아프리카계 미국인 13.5%, 히스패닉 14.3%, 유학생 18.6%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 동안 미국 50개 주 전체와 151개 국가에서 ORU에 등록했다. 상위 5개 주는 오클라호마, 텍사스,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캘리포니아이며, ORU 학생회에서 대표되는 상위 5개 외국 국가는 인도, 나이지리아, 브라질, 온두라스 및 콜롬비아다. ORU의 성과는 고등 교육 부문, 특히 기독교 대학이 전염병, 높은 비용 및 고등학교 졸업자 수 감소 등 다양한 요인으로 폐쇄, 합병, 등록 감소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시기에 이뤄졌다.

2023년 5월 하이어 에드 다이브(Higher Ed Dive)는 전국 수십 개의 대학의 폐쇄 또는 합병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중 18개는 기독교 대학이었다. 185개 이상의 회원 기관으로 구성된 '기독교 대학 및 대학교 협의회'(CCCU)의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아만다 스타젠보그는 이러한 추세가 대학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타젠보그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세속 및 종교 기관 모두 등록 감소를 경험했다"면서 "출산율 감소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고등교육을 받으려는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감소했다"고 했다

한편 버지니아 린치버그에 있는 리버티대학교도 2022년 기숙 및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135,000명 이상의 학생을 유치했다고 밝히며 기록적인 등록 수를 보고했다. 강혜진 기자

# 유대계 미국인 46% “반유대주의로 인해 신앙 표현 위축”




미국유대인위원회(American Jewish Committee)의 줄리 레이먼(맨 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RF 서밋 페이스북

2024 국제종교자유 정상회의(IRF Summit 2024)에서 반유대주의의 증가로 인해, 미국 내 유대인들의 신앙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미국 뱁티스트프레스(BP)에 따르면, 정상회의 공동 주최자인 카트리나 란토스 스웨트(Katrina Lantos Swett)가 참여한 이번 패널 토론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하여 1200명의 이스라엘인과 외국인을 살해한 후에 진행되었다.

인권 및 정의를 위한 란토스재단(Lantos Foundation for Human Rights and Justice) 회장인 스웨트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자신의 어머니가 문에 유대교 신앙의 상징인 ‘메주자(Mezuzah)’를 걸 때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문밖에 걸어도 안전할까? 헝가리에서는 메주자를 걸었지만, 우리는 아파트 안에만 걸었고 밖에는 걸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미국유대인위원회(AJC)의 정책 및 정치 사무국 이사인 줄리 레이먼(Julie Rayman)에 따르면, 유대계 미국인의 46%가 유대교 신앙을 외부에 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미국 유대인들은 메주자를 걸거나, 키파(kippah )또는 야물커(yarmulke) 모자를 쓰거나, 회당에 참석하는 등의 신앙 표현을 꺼려하고 있다. 레이먼은 지난달 31일 정상회의에서 “내 자녀들이 히브리어 학교를 시작할 나이임에도, 남편은 이러한 반유대주의 때문에 ‘1년만 더 기다려보자’고 말했다”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국무부의 반유대주의 감시 및 대응 특별 대사인 아론 키악(Aaron Keyak)이 패널로 참석했다. 키악은 반유대주의 시위가 이스라엘 정부의 결정을 미국 내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키악은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행동에 대해 유대인이나 특정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반유대주의”라며 “중국이 위구르족을 대하는 방식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중국 식당 앞에 가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 특히 워싱턴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을 비난하는 것이 매우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이는 외국 정부의 행동을 이유로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표적삼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대사관이나 미국 국무부와 같은 장소에서 시위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들은 종교 기관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정부의 결정에 대해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기독교 비영리 법률 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3개월 동안 미국에서 1317건의 반유대주의 시위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스웨트는 일부 무슬림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반유대주의에 반대한 데 대해 찬사를 보내며 “연대, 피해자와 함께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우리는 존경과 감사함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으며, 남침례교 산하 윤리종교자유위원회(ERLC)도 조직 파트너로 참여했다.

김유진 기자

# “올해 기독교인이 맞닥뜨린 5가지 전쟁”

미국 캘리포니아 갈보리채플 치노힐스(Calvary Chapel Chino Hills)의 잭 힙스(Jack Hibbs) 목사가 2024년에 기독교인들이 나서야 할 전쟁 5가지를 제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힙스 목사는 신년 설교 시리즈 1부에서 자신의 메시지가 “2024년 전쟁”이 초점이라며, 기독교인들은 “임무 수행 중이며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이는 폭탄, 총기, 미사일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부터 사물이 나타나는 물리적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전면전”이라며 “올해 2024년은 당신의 생애에서 이전에 경험한 어떤 해와도 다를 것”이라고 했다.

힙스 목사는 이것은 “진리에 대한 싸움”이라며, 요한복음 18장 37-38절에 예수와 본디오 빌라도의 대화를 인용했다. 이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가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세상에 왔다고 말하자 그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

힙스는 교인들에게 “그 질문 뒤에 숨은 고통, 혼란, 그리고 환멸에 대해 생각해 보라”며 “우리는 냉소적이고 강퍅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지만 진리를 믿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고 말하며, 빌라도 이후로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실제 진리를 말할 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했다. 힙스는 기독교인의 두 번째 전쟁을 “사실에 대한 싸움”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은 “관찰된 것에 대한 보고”로 정의했다. 그는 사실 검증 기관임을 자처하는 사람들 또는 집단이 가진 편견에 대해 경고하며 “인생이 정말로 올바르게 작동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임을 강조했다.

힙스는 또 2024년이 대통령 선거 연도임을 언급하며 “당신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정도로 속임수가 횡횡할 것이다. 이것은 초음속급 속도일 것”이라며 요한일서 4장 1절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를 인용했다. 그는 2024년 전쟁에서 세 번째는 “믿음에 대한 싸움”이며, 이는 모든 종교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힙스 목사는 교인들에게 “당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은 당신의 믿음이다. 자신보다 더 큰 존재나 다른 것을 믿지 않으면 희망을 잃고 방향을 잃게 된다”고 했다.

그는 네 번째로 “교회에 대한 싸움일 것”이라며 “전쟁은 항상 교회에 대항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대적한다”고 했다.

힙스는 다섯 번째 전쟁은 “결혼에 대한 싸움”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신학적인 천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 1부 07:30AM - 2부 09:15AM - 3부 11:00AM
EM 주일예배 - 1부 09:00AM - 2부 11:00AM
새벽예배 - 평일(월~금) 05:00AM - 토요 예배 06: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주일예배 오전 11:00
화요기도모임 오전 10: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7:00
김상현 담임목사
한인필그림교회
2518 W. Grand Ave. Alhambra, CA 91801
T. (626)570-1610 (교회) , (714)853-4030 (담임목사)


##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EM 오후 12: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사랑부 오전 11: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6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818)363-5887
OC채플
수요영성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ZOOM)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가페홀)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패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6985 W Sahara Ave, Las Vegas, NV 89117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11:00
정공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병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화요중보기도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박은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u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신비의 침술, 놀라운 쑥뜸
Youtube에서 김용석 원장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치료사례를 보실수 있습니다.
김용석 한의원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무극 보양뜸을 체험해 보십시오.
LA 323.733.8814 OC 714.522.8818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주보제작
교회로고
머그컵&텀블러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120 배지터블 캡슐 $8.80
D3 5,000 IU 선샤인 비타민!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베지터블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위브릿지 교회 간증

# Acts Global Church 창립 6주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2018년 2월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시듯 AGC(Acts Global Church)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COVID-19이 시작되며 기존 성도들이 거의 떠나게 되고 렌트했던 건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몇달간 온라인예배를 드리다 작은교회 연합을 통해 함께했던 교회로부터 건물 렌트비는 본인교회가 낼테니 건물을 사용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7개월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지금의 장소로 옮겨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다 실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년간의 팬더믹 기간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협력자들의 도움을 통해 무너지지않고 여기까지 온것은 온전히 은혜였습니다. 새롭게 교회 청사진을 그리고 3명의 목회자 가족이 함께하는 팀사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한국인과 더불어 일본인 선교와 열방선교를 감당하고자 동시통역을 하며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선교를 위해 일본인 학생 기숙사를 시작했고 지금은 12명이 함께 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기숙생들은 생전 처음 교회라는 곳을 접하는 중에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게 되며 3명의 학생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재정적 어려움을 만날즈음에 기독일보를 통해 위브릿지에 연결되었고 큰 은혜와 위로,힘을 얻었습니다.

6년동안 함께 기도해주시고 힘주셨던 모든 분들을 모시고 싶은 마음 간절했지만 가족같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어 6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조건없는 연합과 섬김으로 함께하는 천국 교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 복 되고 눈물겨운 행복함이 넘쳤습니다.

감사하게도 3명의 일본인 신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었습니다. 고 시바할아버님의 기부로 시작된 시바 장학금입니다. 고인이 되신 시바 할아버님은 일본인 2세이십니다. 미군으로서 한국전쟁에 참여하셨고 부상을 입기도했습니다. 한국인 아내를 맞아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다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저희 교회를 위해 계속하여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임을 믿음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사랑합니다.

**2024 Acts Global Church 기도제목**

**1.온 교회 성도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2024년이 되게 하소서**

**2.팀목회자들이 성령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며 협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하는 사역자 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도 안정되게 도우소서.**

**3.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선교를 함께 감당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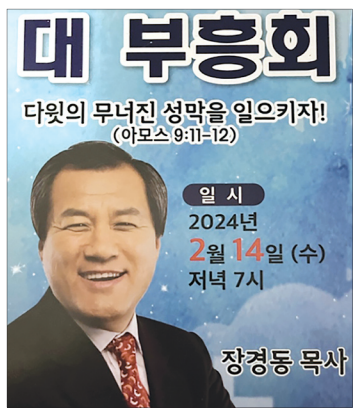
**4. 연합과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 부흥에 기여하는 교회되게 하소서.**





Acts Global Church가 2월 4일 창립 6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 Acts Global Church

# 장경동 목사 초청 부흥회, 14일 행복한교회




하이데저트 한인교회 행복한교회(김상대 목사)가 한국 중문교회 담임 장경동 목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한다.

'다윗의 무너진 성막을 일으키자'(아모스 9장 11-12절)를 주제로 하는 이번 부흥회는 2월 14일(수) 오후 7시 열린다.

행복한교회는 7898 Phelan Rd, Phelan, CA 92371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흥회에 대한 문의는 714-476-9165로 하면 된다.

장경동 목사는 CTS, CBS 등 기독교 방송을 비롯하여 KBS, MBC, SBS 공중파 방송에서도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 저서로는 『하나님 쓰임받고 싶어요』, 『장경동 목사의 부흥하는 교회 살아있는 설교』, 『느낌이 있는 가정 만들기』, 『성공의 사닥다리』 『행복의 사닥다리』 등이 있다.

# 목회자 10명 중 3명 건강관리 무방비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 이하 목데연)가 간단한 일상의 질문을 담는 '넘버즈 Poll'에서 목회자들의 건강관리에 대해 조사했다.

연구소 구독자 중 목회자 575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운동'을 물은 결과 '특별히 하는 운동 없음'이 29%로 가장 높아, 목회자 10명 중 3명은 건강관리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헬스 피트니스, 필라테스 등' 20%, '등산, 트래킹' 14%, '수영' 6%, '탁구' 5% 등의 순이었고, '기타' 응답은 대부분 걷기, 산책, 달리기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 12월 보건복지부가 개정·발표한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에서는 만 19~64세 성인 기준으로 1주일에 150~300분 중강도 신체활동 혹은 75~150분 이상 고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하고, 근력운동을 1주일에 2일 이상할 것을 권한다. 목데연은 "건강한 목회와 노후를 위해 목사님들이 운동 등 최소한의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경호 기자




목회자들이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하는 운동 설문.

# 베델교회 이용걸 목사 초청 부흥집회

베델교회는 2/19~20(월,화) 양일간 오전 10:00~오후 3:00까지 이용걸 목사(필라 영생장로교회 원로, 디모데목회 훈련원 원장)를 초청해 〈변화된 삶〉이라는 주제로 2024 춘계부흥회 및 셀부흥회를 연다.

이용걸 목사는 2/16(금) 저녁 7시 30분, "하나님의 은혜"(출 19:1-6), 2/17(토) 오전 6시 "찬양의 삶"(시 68:19), 2/17(토) 저녁 7시 "성화의 삶"(겔47:1-12), 2/18(주일) 1-3부에 말씀을 전한다. 등록비는 없으며 점심 식사, 레위기 강해집, 선물을 제공한다.

가슴으로 읽는 : 마태복음, 제자 되기 (7)

# 광야의 시험



김 영 길 목사
TMF(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의 대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음식' 이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4:3).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분이 사람이 되어 40일 동안 굶주리셨다. 그때 마귀가 속삭였다.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탐욕과 권력이 손을 잡으면 못할 일이 없다. 이 시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락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의 능력을 사사롭게 사용하신 적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사용하셨다. 그렇게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다. 그러자 마귀가 시험 장소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옮겼다. 그리고 다시 시험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4:6).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명성' 이었다.**

명성은 자기가 영광을 받겠다는 말이다. 마귀가 속삭였다. '당신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단번에 명성을 얻지 않겠느냐?' 사람이 명성에 집착하면 '블랙홀 증후군'에 빠진다. 모든 사람, 모든 제도, 모든 상황이 자기의 명예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명성을 위해 일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 중심, 이것은 무서운 함정이다. 예수님은 간단히 시험을 물리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지혜' 였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4:8-9).

사람들은 지름길을 찾는다. 그러나 모든 지름길이 다 지혜로운 길은 아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보다는 간단한 타협이 더 지혜롭지 않겠느냐고 넌지시 물었다.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면 마귀가 한 마디 더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반박하지 않으셨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권세와 영광'을 마귀에게 넘겨주셨으니까. 마귀는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에덴동산에서도 이와 똑같은 시험이 있었다.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았을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훗날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였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일 2:15-16).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했다. 그러자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 우리도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다른 길이 없다.

대부분의 시험은 혼자서 당한다. 그래서 위험하다.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은 예수님과의 동행이다. 시험당할 때에 예수님께 물어보라. 탐욕이 밀려올 때, 명성에 대한 갈증으로 목이 마를 때, 불의와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켜 올 때,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물어보라. '주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어요?' 묻지만 말고 도움도 청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몸소 체험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신다. 우리를 측은히 여기신다.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도해내신다. 모든 시험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다.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이야기는 예수님만 아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다면 영원히 묻힐 뻔한 이야기이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가 당하신 시험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같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고마우신 예수님!

---

강태광 칼럼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 두 엄마의 피눈물 그리고 그다음엔?

1997년 영국 다이애나비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온 영국민은 큰 슬픔에 빠졌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이 사건 후, 많은 영국인의 우울증과 정신질환이 치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현상을 "다이애나 효과(Diana effect)"라 부른다. 그녀의 죽음에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 자체가 일종의 감정과 정신적 상처를 치유했기 때문이라는 보는 것이 유력하다.

눈물이 심리적 상처와 아픔을 치유한다는 것은 검증된 사실이다. 눈물로 쌓였던 스트레스와 우울증 그리고 관련된 부정적 호르몬들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학계 정설이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를 눈물에서 답을 찾는 전문가도 있다. 눈물을 흘려야 될 상황이면 남 눈치 보지 말고 엉엉 우는 것도 삶의 지혜다. 눈물은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명약이다.

오래전 풋볼의 영웅이 한국계 미국인 하인즈 워드(Hines E. Ward, Jr,)라는 선수가 있었다. 그는 한국인 어머니와 흑인 병사 사이에 태어나 힘든 성장기를 거쳤다. 어머니가 영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과 이혼을 할 때 아들을 양육할 권한을 얻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양육권을 되찾은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지만, 아들은 어머니가 창피했고 어머니가 싫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자동차로 하인즈를 학교에 데려다주었다. 어머니가 부끄러워 자동차 뒷좌석에 숨었다가 뛰어나가던 하인즈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큰 눈물방울이 맺힌 눈으로 자기를 지켜보던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사랑스럽고, 자신을 위해 고생하는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솟아올랐다. 이후로 하인즈는 변화되었다.

요즘 캘리포니아를 적시는 엄마의 눈물이 있다. 먼저 에린 프라이데이(Erin Friday)변호사다. 그녀는 민주당과 성소수자의 강력한 지지자였다. 그런데 자기가 지지했던 법 때문에 딸의 성전환수술도 막지 못했고 딸을 빼앗겠다. 그녀는 피눈물을 흘렸고, 엄청난 돈을 쓰고 성전환수술을 한 딸을 데려왔다. 이 일을 겪고 그녀는 캘리포니아 아동보호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두 번째 엄마는 아비가일 마티네즈(Abigail Martinez)다. 그녀의 딸이 우울증을 앓을 때 학교가 개입해서 어린 딸이 성전환수술을 했다. 피눈물을 흘리며 딸을 주1회 접견하며 신뢰를 쌓아 딸을 집으로 데려왔지만, 딸은 끝내 자살하고 말았다. 딸의 죽음에 엄마는 또 피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프라이데이 변호사와 함께 캘리포니아 아동보호를 위한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이끌고 있다.

이런 피눈물을 흘린 어머니가 두 사람만 있을까? 아마도 많은 어머니가 이런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우리 한인들 가정에는 이런 눈물이 없을까?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런 아픔을 겪으며 숨어서 피눈물을 흘릴 한인 가정들이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흘린 눈물이면 충분할까? 마지막일까? 아니다. 그렇다면 두 엄마의 피눈물 그다음엔 누구일까?

눈물에 유익이 많다지만, 딸과 아들을 잃고 흘리는 피눈물은 백해무익하다. 이런 눈물은 한을 남기고 육체를 파괴한다. 이런 피눈물을 더 이상 흘리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두 어머니의 눈물로 캘리포니아가 치유되기를 바란다. 많은 사람이 가주 아동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2024) 주민발의 신청서 서명운동에 힘쓰고 있다. 다시는 이런 피눈물을 흘리지 않고, 이미 흘린 그 피눈물 닦아 줄 수 있는 새 법을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한다.



강태광 목사(가주 아동보호법 주민발의 신청서 서명운동 본부 사무총장)



건강식품, 생활가전, 주방·미용·위생용품 한국산 먹거리 등 제품을 최고의 가격으로 드리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 홈쇼핑월드

## 새봄맞이 활짝핀 봄꽃세일!!

세일 기간 : 2024년 02.16(금)-02.19(월)

### 바디프랜드 팔콘 로봇 맛사지체어

독점계약체결 기념 가격파괴 세일!!

바디프랜드
**팔콘 로봇 맛사지체어**

~~$9500.00~~ 홈쇼핑월드 특별세일가

**$4490.00**

(일시불)



WOW **금주의 원가 및 원가이하 세일!!**

고급 위생
**비닐장갑**
200매
~~$4.99~~
**$1.00**
*1인 3세트 한정




영신건강
**유기농 꿀가루**
~~$4.99~~
**$1.99**
*1인 5팩 한정




옛날
**짱아찌** 각각
명이나물, 마늘쫑, 샐러리, 깻잎, 고추
~~$9.99~~
**$4.99**
*1인 5세트 한정




한국산
**100% 볶은 아스파라거스 차**
~~$16.99~~
~~$9.99~~
**$4.99**




광동제약
**생강쌍화 골드**
10팩
~~$19.99~~
**$7.99**




**Immune-11**
면역력 향상제품
60캡슐 (유효기간 9월)
~~$49.00~~
**$10.00**
*4병 구매시= 개당5불




6제로 플러스
강아지 **사료**
2kg_소_시니어
2kg_연어_시니어
~~$29.99~~
**$19.99**




기적의 명약
**산삼환**
10환
~~$69.99~~
~~$49.99~~
**$19.00**
*1인 5세트 한정




몽크로스
**후라이팬 4구**
~~$39.99~~
**$19.99** 반값 세일!



몽크로스
**후라이팬 사각** (계란말이용)
~~$39.99~~
**$19.99** 반값 세일!



안동농협
**고춧가루**
500g
**$49.99**




기적의
**안심당 110**
~~$99.00~~
~~$69.00~~
**$49.00**




동원
**침향 공진단**
30환
~~$129.00~~
~~$69.00~~
**$35.00**
*1인 3박스 한정




홈아트
**원적외선 히터**
~~$89.99~~
~~$69.99~~
**$54.99**




동원
**6년근 홍삼 에브리원 스틱**
1개월분
1박스: ~~$79.99~~
4박스: **$99.00**




홈쇼핑 월드
HOME SHOPPING WORLD
hswus.com
youtube.com/tvkoa

**LA 올림픽지점** (213)380.3330/3307
3071 W. Olympic Blvd, LA, CA 90006
올림픽 + 아드모어 (구 김윤성 자동차 자리)
자동 주문 전화 1-855-818-0050

**OC 부에나팍지점** (714)522.2494/2496
5300 Beach Blvd #118 Buena Park, CA 90621
비치 + 멜번 BANK OF HOPE 몰
자동 주문 전화 1-855-818-0050

*광고 내용 중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상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각 매장 상황에 따라 상품의 판매 수량과 세일 가격이 변경 및 제한될 수 있으며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There may be a typo in the content of the advertisement, and the image of this product may be different from the actual one.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each store, the sales volume and sale price of the product may be changed and restricted.

진유철 칼럼

# 존재가 바뀌면 소원이 바뀝니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미국의 위대한 소설가라고 불리는 마크 트웨인이 1881년에 출간한 역사적 소설, '왕자와 거지'가 있습니다. 이 소설은 16세기 잉글랜드를 배경으로 해서 쌍둥이처럼 생긴 두 소년, 곧 왕이 될 에드워드 튜더 왕자와 거지 톰 캔티가 만나 서로 옷을 바꿔 입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왕자는 거지 옷을 바꿔 입음으로 경비병에게 거지로 오인을 받아 궁전 밖으로 쫓겨나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음으로 결국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변화는 없었기에 결국 정신이상 취급을 받으며 궁중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존재(Being)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삶의 행동(Doing)이 변화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삶이 바뀌려면 먼저 존재가 변화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인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존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부활을 믿음으로 나의 죽은 영이 거듭나 산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게 되면 소원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육체의 소욕으로 세상의 소원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영의 소원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나만 잘되면 되었지만 이제는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2:13)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순종할 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감동"과 "칭찬"과 "권위"가 생깁니다. 마리아는 천하고 약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후 하나님의 소원을 순종하여 담대히 옥합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로 이해와 납득이 안 된다고 주변에서는 웅성거리고 가룟 유다는 낭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사되실 일을 위해 기름 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순종한 일이라며 어마어마한 칭찬과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막14:9)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성가대나 찬양 팀이나 교사로 부르심에, 부엌 봉사나 주차 문제에 하나님의 소원을 순종하는 행함을 통해 우리를 큰 그릇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여러 선교의 기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원을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특별히 희년의 주님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3월 행사를 통해 주어졌는데 온 교회가 잘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나님 복 주시는 새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 임하고 감동과 칭찬과 권위가 생기는 하나님 소원에 대한 순종의 행함이 있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샬롬!

김한요 칼럼

# 0.0001%를 위한 기도



김 인 수 목사
전 미주장신 총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 첫 구절)

1969년 7월 16일, 달을 향한 인공위성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발사되었습니다. 우주선에는 선장 닐 암스트롱, 사령선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 달착륙선 조종사 버즈 올드린이 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7월 20일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달에 내려 걸어 다니면서 최초로 인간의 발자국을 달에 남겼습니다.

이는 인류가 지구 밖의 항성에 최초로 발을 디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인공위성을 달에 착륙시킨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Wernher von Broun(1912-1977)박사는 인공위성을 달로 쏘아 올리기 직전, 미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할 확률은 99.9999%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0.0001%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99.9999는 완벽에 가까운 숫자지만, 세상에 완벽이란 없으므로, 0.0001%의 오차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따라서 이 0.0001%는 인류의 한계를 넘어선 신의 영역이므로 모든 미국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최첨단의 최고 과학자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과학에는 완벽이 없고,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Braun 박사는 1912년 독일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폴란드 농림부 장관이었고, 어머니는 영국 왕실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공부했으나, 꿈은 우주에 있었습니다. 그는 베를린 공대에서 액체 연료를 전공한 후에 세계 제2차 대전 때, 육군 병기국(兵器局)에 배속되어 히틀러의 명령을 받고 영국을 공격한 탄도 미사일 V2를 제작해서 영국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기가 꿈꾸었던 일이 살상용으로 이용되는 것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브라운을 체포했으나 처벌하지 않고,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시민권을 주고, 국가항공우주국 NASA에 배속 시켜 인공위성 연구에 전념케 했습니다. 인재(人才:재주가 뛰어난 사람)를 벌하지 않고, 포용해서 전공 분야에서 일하게 한 미국의 포용력이 미국을 위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인공위성 연구에 전념하던 무렵인 1959년,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 스프트니크호를 발사하였고, 2년 후인 1961년에는 유리 가가린이 최초로 유인(有人) 우주선을 타고 우주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실로 미국은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확실하게 뒤쳐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여러 언론과 과학자들은 브라운 박사를 비난하면서, 어떻게 소련을 따라 잡을 수 있겠느냐며 따졌습니다. 그때 브라운은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초등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너무 소홀히 한 탓이다." 그의 대답에 기자들뿐만 아니라 교육계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옛날 그리스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플라톤의 아카데미 입학시험에서 기하학을 모르는 학생은 받지 않았습니다. 인문학이 자연과학을 소홀히 하면 재앙이 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후 소련보다 앞서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집념을 가진 브라운 박사는 결국 당시 케네디 대통령의 꿈이었던 '60년대에 인간을 달에 보낸다.'는 계획을 실천해 보였습니다. 브라운 박사 주도로 달 표면에 인류의 발자국을 남기고, 성조기를 꽂고 온 이래 50년이 지났지만, 미국을 포함한 그 어느 나라도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기타 우주 선진국들이 인간을 다시 달에 보낼 날이 오겠지만, 0.0001%의 법칙은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인간이 달에 발을 디딘 것은 브라운 박사의 0.0001%을 위한 기도 부탁 덕분입니다. 신이 아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0.0001%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완전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신앙 고백합니다. 샬롬.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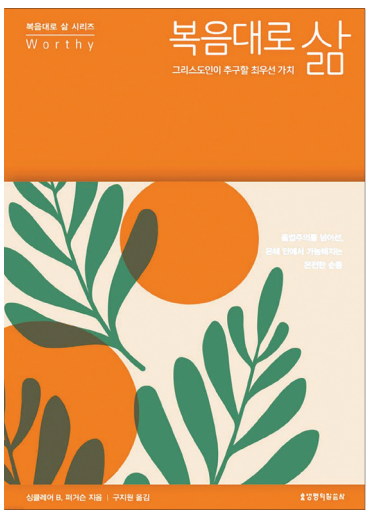
#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복음과 똑같은 무게가 되도록 살라

# 복음을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 사이, 간극 줄이기




복음대로 삶

싱클레어 B. 퍼거슨 | 구지원 역 | 생명의말씀사 | 120쪽 | 11,000원

**복음대로 사는 삶은 오늘날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이다. 이 온전함은 복음에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삶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으로, 도덕이나 정통 교리보다 더 필요하다.**

**복음은 직설법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명령법이다. 복음의 직설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복음의 사역을 제시하고, 복음의 명령법은 그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을 요구한다.**

이 책은 '복음대로 삶' 시리즈 첫 번째 책이다. 시리즈 기획자인 마이클 리브스는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이 심한 간극을 보이는 작금의 사태를 경계하며 "복음대로 사는 삶은 오늘날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이다. 이 온전함은 복음에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삶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으로, 도덕이나 정통 교리보다 더 필요하다(11쪽)"고 시리즈 서문에서 그 취지를 밝혔다.

빌립보서 1장 27절-2장 3절에서 네 가지 '복음대로 삶'의 특징을 찾았는데, 첫째로는 '합당함'이고 퍼거슨을 통해 〈복음대로 삶(원제 Worthy)〉이라는 제목으로 다뤘다. 둘째는 연합, 셋째와 넷째는 각각 용기와 겸손이다. 그중 첫 번째 책과 마지막 책이 2023년 12월 생명의말씀사를 통해 번역 출간됐다. 리브스는 이 시리즈를 통해 독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연합하여, 용기 있고, 겸손하게 살아가라(12쪽)"고 요청한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성경학자(교수), 목사, 저술가가 됐다. 스코틀랜드 출신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그는 교회사와 철학, 성경과 교리에 능숙하며, 다루는 모든 주제에 관하여 신선하고 재치 있으면서도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독자에게 분명히 전달되는 방식으로 말하고 쓸 줄 아는 사람이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우리가 교회다〉는 코로나를 겪으며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는 이들에게 참으로 적실하고 유익한 책이었다(생명의말씀사, 2021). 이 책 〈복음대로 삶〉 또한 헬라어 기본 문법으로 분류해 복음 교리를 신선하게 제공하고, 성경의 많은 사례와 그리스도의 본, 복음의 핵심 가치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 저자의 탁월한 실력이 잘 드러나는 책이라 생각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빌립보서 1장 27절 명령에서 '합당하게'에 해당하는 주제를 다룬 책이 바로 퍼거슨이 쓴 〈복음대로 삶〉이다. NASB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in a manner worthy of the gospel"이라고 번역했다. 그래서 이 책의 원제가 'Worthy'이다.

우리 삶이 복음의 가치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복음이 고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만큼 우리 행실이 고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야 한다는 말이다. 때문에 먼저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하고, 퍼거슨은 2장에서 몇 가지 헬라어 기초 문법을 통해 신선하고 분명하게 다룬다.

그에 앞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명령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에 관한 개념을 신앙생활 내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이자 직접적인 명령이다. '악시오스(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과 일치하고 어울리고 복음과 '똑같은 무게가 되도록' 살라는 중차대한 요구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잘 몰라서 이 명령의 무게를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약 서신서는 복음대로 삶을 가르치기 전에 항상 복음을 다시 선포했다. 퍼거슨도 같은 방식을 취했다.

복음은 직설법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명령법이다. 복음의 직설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복음의 사역을 제시하고, 복음의 명령법은 그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을 요구한다. 순서는 항상 이렇다. 뒤바뀌면 율법주의가 된다.


ⓒPixabay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전치사는 '안에서(in)'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게 됐다.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소망하며, 현재를 살아가게 한다.

그리고 긍정문(하라)와 부정문(하지 말라)의 균형을 지키며 하나님께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원칙을 지켜가면서 사는 자는 결코 방종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를 복음대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는 그분의 섭리와 말씀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복음의 목적대로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빚어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령한 젖인 말씀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장성하도록 하신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전달해야 할 내용이 아니다. 살아내야 할 과제다. 이것은 사실 은혜로운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계속해서 행하실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음대로 삶'은 신자에게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이다.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름만 살아있는 교회,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가? 세상은 복음을 들어야 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봐야 한다.

퍼거슨의 〈복음대로 삶〉을 통해 독자가 복음을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의 간극을 줄여가는 일을 삶에서 추구해야 할 최우선 가치로 삼게 되기를 바란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2월, 작가들의 말말말

**▣ 「틈입하시는 하나님」 제임스 에드워즈**

성경의 하나님은 용맹한 영혼들을 천상으로 들어 올리시지 않는다. 우리 능력에 집중해서 그 깊이를 파헤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거슬리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들어오신다. 사람들이 그분을 기대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하고 끔찍한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그것을 입증한다. 세상은 전혀 안전한 곳이 아니다. 안전이라는 말이 거룩하신 분의 방문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뜻이라면 말이다. 틈입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먼저 우리를 약하게 만드셔야 한다는 것이 제자도의 역설이다. 기드온 이야기가 일깨워 주듯,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셔야 한다. 이는 단순히 위대한 믿음의 행위뿐 아니라 가장 작은 행위까지 포함한 모든 믿음의 행위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다. 틈입하시는 하나님은 기드온의 은밀한 위장 작업에 잠입하셔서 그를 하찮은 골칫거리에서 위대한 해방자로, 벌레 같은 존재에서 터미네이터로 변화시키신다.

**최승연 기자**

##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2024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 ATS, ABHE 정회원
- 온·오프라인 통합 블랜디드 수업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학자금 지원 (Cal & Pell Grants)
- 학부 | 신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중국어 신학
- 석사 | 목회학, 목회학 원목집중과정, 목회학 코칭집중과정, 선교학, 상담심리학, 전문코칭학, 중국어 선교학, English M.Div.
- 박사 | 목회학, 선교학, 선교학철학, 상담심리학
입학문의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주 소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영화 〈서울의 봄〉 (5)

# 영화 '서울의 봄 현실 됐다면? 2010년 '아랍의 봄' 을 보라



12·12 군사반란 당일의 사건들을 중심 서사로 삼는 영화 〈서울의 봄〉.

## 자유를 위한 민주화인가, 민주화를 위한 자유인가?
## 민주주의도 자유의 수단, 자유 희생시키면 본말 전도
## '서울의 봄' , 도구 불과한 민주주의 우상화한 편협함

**◈민주화의 환상: 서울의 봄 당시 실정에 적합하지 않았던 성급한 민주화**

정권을 획득하려는 모든 행동과 노력은 종국에 혁명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득권층은 원래 향유하고 있던 권리와 편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므로, 이를 탈취하기 위해 반드시 유혈 충돌이 일어난다.

자유민주주의는 그나마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평화롭고 세련된 형태로 정권이양을 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하지만, 이 원리가 현실에서 원래 목표대로 온전하게 작용하려면 정권 다툼에 참여하는 이들의 양보와 성숙한 자세가 요구되며, 사회 전반에 대중의 삶을 안정시킬 만한 충분한 재화와 자원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1979년과 1980년, 12·12 군사반란부터 5·18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시기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정치가 절충된 통치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다.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공산주의 정권에 대항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굳건하게 고수했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정부나 사회 전반에는 실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만한 제도나 생활방식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정부 부처, 사기업, 그리고 가정을 비롯한 민간 영역 전체에 형성된 모든 인간관계는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으며, 전체주의적 질서가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이기도 했다.

이는 정부와 민간 전 영역에 군부의 주도권이 확립돼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 및 기업 요직에는 군 출신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었고, 대단히 가혹한 분위기의 군 복무를 경험한 일반 시민들은 군대 식의 상명하복 질서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것에 별다른 반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선거를 통해 군부 출신이 아닌 야권 민주화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당시 한국 시대정황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 것이었다. 당장 군부 출신이 아닌 행정부 수반 및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군인들이 순순히 받들 리 없었다. 특히 새로운 문민정부가 군부가 쥐고 있던 권리와 편익을 박탈해 민간으로 돌리려 할 경우, 군부가 이를 가만히 두고 볼 리 만무했던 것이다.

영화 〈서울의 봄〉이 선보이는 역사관의 맹점은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구체적인 정치적·사회적 정황을 무시한 채 군부 내 권력다툼을 협소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작품을 연출한 김성수 감독의 나이는 올해로 62세다. 12·12 군사반란 당시 막 대학 입학을 했던 그가 당시 사회 분위기를 몰랐을 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서울의 봄〉에서 김성수 감독은 1979년과 1980년 당시 야권의 민주화 지도자들에게 즉각 권력이 이양되지 않은 것을 큰 역사적 비극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드러낸다.

물론 전두환 일파의 정권 장악이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비극적 사건으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그 반대편 정승화-장태완 일파가 정권을 장악했다 해서 민간으로의 정권이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리라 확신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과연 정승화 측이 영화 〈서울의 봄〉이 순진하게 예상하는 것처럼 정권을 잡았을 때 순순히 민간의 야권 민주화 지도자들에게 권력을 넘겨줄 만큼 민주화 열망이 넘치는 이들이었을까?

**◈민주화의 실상: 여건이 받쳐주지 않을 때는 오히려 자유를 훼손하는 민주화**

그런데도 〈서울의 봄〉이 이렇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을 예상하고도 12·12 군사반란의 실상을 왜곡해 묘사하는 이유는 김성수 감독의 민주화에 대한 맹목적 신념 때문이다. 직접선거에 의한 문민정부 출범이 대한민국의 모든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답이며 역사의 절대적 진보라는 굳건한 확신이 이 영화의 메시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아쉽게도 김성수 감독이 생각하는, 그리고 한국 진보좌파 인사들이 생각하는 민주화는 우리 현실에 대한 절대적 대안이 아니다. 어떤 정치체제 혹은 정치집단이 진정 국민들의 삶을 안정으로 이끌 것인지 판단하는 지혜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다.

그런데 거의 모든 민주화 혁명은 군중심리가 내뿜는 막대한 열의 때문에 이런 상대성과 유동성을 무시한채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 마련이다.

민주화라는 가치를 신앙처럼 받드는 이들이 그토록 칭송하는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역시 실상은 처참하고 형편없는 것이었다. 숭고한 이상이라는 명분 하에 온갖 협잡과 정권욕이 정당화됐고, 갖가지 비열한 범죄와 잔혹한 학살이 자행됐다.

그런 혁명에서 진정한 피해자들은 바로 순진하게 민주화의 이상과 원리를 믿고 지도부의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며 혁명에 동참한 이들이다. 그들은 그들이 온전하게 누릴 수 없는 권리를 위해 삶과 생명을 내던졌다.

"예전에 우리는 왕을 죽였지. 너무 빨리 세상을 바꾸려 한 거지. 하지만 지금 우리는 새로 온 왕을 섬기지. 그는 과거보다 더 나을 것도 없어." 프랑스 혁명의 처참한 결과를 풍자하는 영화 〈레미제라블〉의 촌철살인과 같은 이 대사는 민주화 이상의 허상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민주화의 이 같은 난맥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특히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화를 시도할 때, 번영과 안정보다는 침체와 불안, 분쟁이 가속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2010년 12월, 튀니지 혁명으로 시작된 '아랍의 봄'이 중동 각국에 펼쳐놓은 참상들은 그 대표적 예라고 볼 수 있다. 중동 전체에 번진 이 민주화 시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군부의 압제 강화나 내전 등으로 귀결되었다.

서울의 봄,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 당시 복음적 목회자와 교회들은 교인들, 특히 기독교인 대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했다.

당시 민주화 세력은 이런 교회의 움직임을 시류에 영합하는 비겁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린 이유는 세 가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정교분리 원칙을 지켜, 신앙에 정치이념이 누룩과 같이 섞여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둘째는 영적 복에 비한다면 허망하기 그지없는 세속의 참정권 때문에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는 어리석음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셋째는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에서 '자유'를 '민주주의'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의 처참한 결과를 풍자하는 영화 〈레미제라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민주화의 폐해를 보여준다.

한국교회는 신앙의 자유, 복음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살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사회를 원했다. 그리고 '민주주의'란 이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만일 '민주주의'를 위해 '자유'를 희생시킨다면, 그것은 목적과 수단,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오늘날 진보좌파 세력이 사회 전체에 널리 퍼져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현실을 유념한다면, 서울의 봄 당시 복음적 목회자들은 성경이 가르쳐준 지혜를 따라 선견지명을 가졌던 것이다.

영화 〈서울의 봄〉은 도구에 불과한 민주주의를 절대적 목적으로 우상화하는 편협한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파했고, 민주화에 대해 막연한 환상을 품은 많은 이들이 그것에 호응해서 영화를 관람했다.

이 영화가 2023년 대한민국 최고 흥행작이 된 현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물지 못한 정치관·세계관을 반영한다. 이는 민주화 역사를 자세하게 공부하고 깊이 살피는 일을 귀찮게 여기는 이들이, 영화 한 편을 관람하고서 민주화에 사명을 바치는 '깨어 있는 시민'인 것처럼 행세하는 대한민국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박욱주 박사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통큰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공상현씨를 찾습니다
Denver Co에서
신학을 하기 위해 LA로 이주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혹시 덴버 사시던 공상현씨의 연락처를 아시는 분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호간에 아주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연락처 (213)310-1800
김 바울 목사

# 미주복음방송의 2024 나눔On 콘서트, 성황리에 개최

2024년 새해를 열며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에서는 상반기의 첫 행사로 10일 LA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에서 '2024 나눔On 희망 On' 자선콘서트를 개최했다.

LA주님의영광교회의 연합성가대 찬양으로 시작한 콘서트는 이기명 사역자의 색소폰 연주 '가브리엘의 오보에', '기뻐하며 경배하세'로 막을 올렸다. 이어 찬양 사역자 손경민 목사, 주리, 이윤화, 김정희 사모가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거룩 거룩 거룩', '행복', 천번을 불러도',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살아계신 주', '충만' 등 13여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콘서트는 모든 참석자와 청중의 연합으로 '주의 은혜라'를 찬양 함으로 마무리 되었다.

'나눔과 헌신' 시간에 도전을 준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은 "튀르키예와 우크라이나, 아이티 모두 큰 재난과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지만 어느샌가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이번 나눔On콘서트의 주제성구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인것처럼,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듯이, 모든 성도들도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할, 우리의 한 몸 같은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사랑도 행복도 주고 받는 대상이 있을 때 비로서 완성된다"고 말했다. **문의: 미주복음방송 (714-484-1190)**



미주복음방송에서는 상반기의 첫 행사로 10일 LA주님의영광교회에서 '2024 나눔On 희망 On' 자선콘서트를 개최했다. ⓒ기독일보

# 홍이삭 아버지 홍세기 선교사 "아들 신뢰… 제가 한 일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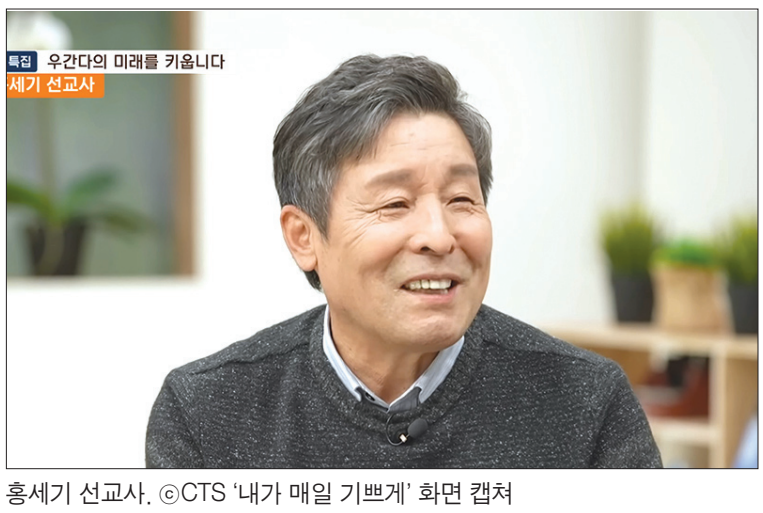
홍이삭의 아버지 홍세기 선교사가 최근 CTS '내가 매일 기쁘게'에 출연해 간증했다.

쿠미대학교 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홍세기 선교사는 "아들의 싱어게인 출연으로 잠시 한국에 방문했다"며 근황을 전했다. 홍세기 선교사의 아들 홍이삭은 '싱어게인 3'에서 58호 가수로 출연해 우승했다. 파이널 무대를 앞두고 홍세기 선교사 부부가 내한하는 모습도 전파를 탔다. 홍이삭은 마지막 무대에서 이전까지 없었던 음이탈 실수를 범했지만, 온라인 사전투표와 파이널 1차전과 2차전 심사점수 및 실시간 문자 및 온라인 투표 등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1위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홍 선교사는 "우간다 이전에 인도, 필리핀에 있었기에 아이가 음악 활동하는 것을 가까이서 본 일이 없어서, 파이널을 한다고 해서 보러 가자고 했다. 그런데 아이가 긴장을 너무 해서 오히려 방해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홍 선교사는 "주어진 사명이 먼저다 보니 아이가 어렸을 때는 데리고 다녔지만, 크고 나선 그럴 수 없었다. 제가 한 일이 거의 없다"며 "중고등학교 땐 불만 같은 것도 조금 있던 것 같지만, 이젠 많이 커서 단단해졌다"고 했다.

그는 "저는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커야 잘 성장한다고 본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듯. 다만 조건이 있다. 늘 공감해 주고 지지해 주고 같이 있어주려 마음으로 많이 애썼다. 특별히 이걸 하라 저걸 하라는 요구 없이, 아이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나중에 아이가 음악을 (진로로) 결정할 때 기다렸다는 듯 손뼉쳐 주고, 지원은 미흡했지만 마음으로 같이 했다"고 했다.



홍세기 선교사. ⓒCTS '내가 매일 기쁘게' 화면 캡쳐

**"주어진 사명이 먼저다 보니... 제가 한 일이 거의 없다"**
**"구레네 시몬처럼 '이 십자가를 저 언덕까지만 지고 가자' 한 것이 5년"**

아울러 현재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 "'구레네 시몬처럼 이 십자가를 저 언덕까지만 지고 가자' 한 것이 5년 됐다. 학교가 매우 시골에 있고 이전 선교사님들이 매우 애썼음에도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었다. 그리고 제가 총장을 시작했을 때 우간다 정부에서 폐쇄 대상 두 번째 학교로 신문에 공고를 냈다.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하고, 신입생이 오지 않고, 교수 월급을 못 주게 되고, 데모도 있었다"며 "그런 일이 처음이고, 능력도 없어 원망은 못하고 밤마다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갑자기 조용해졌다. 우왕좌왕하다가 그동안 미비 된 학교 일을 준비하게 됐다. 책걸상을 준비하고 컴퓨터실도 만들고 책도 구비하고, 그동안 빗물을 받아 썼는데 수돗가도 만들었다. 한동대가 도와 줘서 무료 와이파이 시설도 했다. 프로그램도 교육부에 내서 확인을 받았다"며 "코로나 기간이 큰 은혜였고, 저도 살 수 있는 기회였다. 결과적으로 700명이던 학생이 지금 2,000명 정도로 늘어나 월급도 안 밀리고 학생들이 필요한 것 해줄 수 있는 학교가 됐다"고 고백했다.

또 홍 선교사는 "학생들 가르치는 게 훨씬 즐겁다. 총장 일은 매일 기쁘지 않다. 모든 문제가 총장실로 온다. 처음 총장이 되고 여학생이 죽은 소식을 듣고 장례식을 간 적이 있다. 갔더니 자주 굶어 영영실조가 동반된 병 때문에 죽었다고 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루 한 끼라도 밥을 먹였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다. 이후 피자 집을 하고 계신 한 장로님을 만나고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분점을 내면 2배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다. 그분 덕에 하루로 시작한 급식이 이제 닷새 할 수 있게 됐다. 봉사하고 성경을 읽으면 급식 쿠폰을 주고 있다"며 "제 마음에 가장 힘든 것은 학생들의 어려움을 들을 때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듣고 공감하면서도 기도하며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20대 후반에 회심의 경험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제게 다 주셨는데, 저도 드릴 것 있으면 드리고 싶었다. 저는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도울 수 있는 것이니, 제가 가는 길을 특별하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이 싱어게인 스튜디오 한번 갔는데 좀 울컥했다. 아이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같이 애쓰는 청년들에 대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 대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 생각이 났다. 한국 아이들은 그래도 기회가 있는데, 우리 학교 아이들은 너무 없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간다든 아프리카든 제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 줄곧 있을 생각"이라며 "우리 학교가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자 장학금을 시작했다. 학생들이 마음으로 함께 학교를 자기 집처럼 섬겼다. 우린 약간의 도움을 줬는데, 거꾸로 그들이 우리에게 준 사랑이 많다. 이 학생들이 자기 나라나 아프리카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간다 기독교 역사가 3천 년 정도 됐다. 이분들은 전혀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인내심이 강하다. 부족이 분쟁이 많은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 학생들이 세상을 구원할 학생들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특별히 이날 방송에서 홍이삭의 영상편지도 공개됐다. 홍이삭은 영상 편지를 통해 "저에게 있어 아버지는 방향키 같은 분"이라며 "'아버지가 이런 선택을 한다 하면 나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다'고 깨닫게 하는 그런 분"이라고 증거했다.

김신의 기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 칼라 $40 레귤러 부터 시작 $20 부터 시작

매직 스트레이트 $150 레귤러 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시작

프로페셔날- 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S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금요일 10:00 AM~7:00 PM 토요일 09:00 AM~6:00 PM

Tel: 213-739-1022

BTS SOLAR DESIGN

#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2024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80%

연방 ITC : 30% 이상
쏠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100% Made in USA

SCAN ME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전기료 50~90% 절감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Lic#854389

BTS Solar Design Inc. T. 213-500-8000



# ADU 전문

## 리모델링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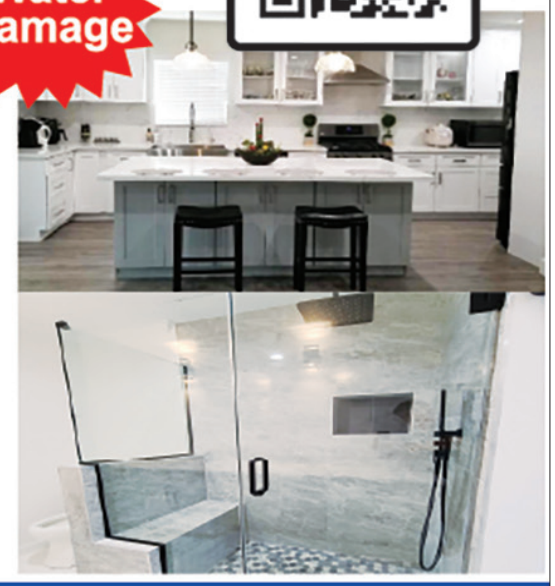
실내구조 변경 | 집수리 일체 |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u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Water Damage



Lic#854389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K-Urban Builders Inc. K-Urban Builders Inc.

견적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상담 O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